

10강 중공군공세와 유엔군재반격

순서

- 중공군의 창설과정과 참전
- 중공군 작전목표와 단계
- 중공군 제1차 공세
-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
- 중공군 제2차 공세

중공군 창설과정

- 1927.8.1.: 南昌(남창) 무장봉기, 추수폭동을 계기로 정강산 입산 - 흥군 제4사단창설(중공군 시초)
 - 대장정을 거쳐 농촌지역에 기반 구축
 - 중·일전쟁 발발 민병합작: 항일전 수행(팔로군)
 - 화북, 화중에서 게릴라전 전개
 - 항일전 보다는 농촌의 기반 구축에 주력
 - 2차세계대전후 국공 간의 내전으로 발전
 - 소련군이 회수한 일본군의 장비로 전력 향상
 - 농촌 지배를 통한 도시 국부군 고립/격멸

중공군 창설과정(계속)

- 미군이 국부군에 원조한 무기 대량으로 입수
- 국부군의 포로와 민간인 일정기간 교육 후 공산당 편입
- 1949.10.1.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선포
- 국민당 정부 및 국부군 대만으로 철수
- 당시 중공군 병력
 - 5개의 야전군으로 편성
 - 총 병력: 350만 명 수준

중공군의 정체

- 전략목표: 항미원조 국가보위
※순망치한 호파당우
- 중국 인민지원군 편성
 - 인민지원군 → 중국 정규군 인민해방군 일부
 - 사령관: 팽덕희, 부사령관/정치위원: 등화
부사령관: 총학지, 한선초 참모장 해방
 - 정치부 주임: 두평
- 지원군: 중국 인민→조선 인민 돋는 군대(민간군대)

중공군 개입 요인

간접요인

- 중공의 대한반도 인식
※순망치한, 보거상의
- 중공의 국익추구 → 중공군 파병
정권안정, 대만 실지 회복, 경제 회복
국제사회 지위 향상

직접요인

- 미국에 대한 중공의 적개심
미국이 중공의 전쟁개입 경고를 무시(5회)
조•중 상호 방위협정(1949.3.18.)

중공의 대미경고

- 중공군 총참모장 대리 섭영진 경고 (50.9.25)
- 중공 외상 주은래가 주중 인도대사 파니카에게 중공의 개입 불가피성 전달(50.9.30)
- 주은래 개입성명 발표(50.10.1, 북경방송)
- 주중 인도대사에게 개입의사 재천명(50.10.2)
- 최후 개입경고(50.10.10)

중공군 개입 과정

- 미 지상군 투입 시, 북한지원 동북변방군 조직
- 인천상륙작전 전세역전 후, 소련, 북한 공식 지원요청
- 동북변방군을 인민지원군으로 개편 출병명령
- 참전: 10.19 - 4야전군 예하13병단 6개군 18개 사단
11.초 - 3야전군 예하 9병단 3개군 12개 사단

미 지상군의 전선 추입이 구체화되었을 때,

동북변방군: 13병단의 4개 군, 포병 3개 사단, 1개 고사포 연대, 1개 공병연대 등

25만 5천명 구성

↓

한미 연합군의 북진이 확실시되자
중국인민지원군으로 개친 이른바 **중공군**

미국의 중공군 개입 예측 실패

중국: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 - 전세 불리 → 전쟁개입의사 보임

미국: 중국이 내전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타국에 전쟁 개입 여유가 없다고 판단
중공의 개입 의사를 속임수로 판단. 참전하더라도 미군을 상대할 수 없을 것!

미국의 중공군 개입 예측 실패

- 민간인의 첨보 “중공군이 6•25전쟁에 개입할 것” → 미국
대만정부의 통보 → 대만정부의 통보 → 묵살, 예측은 완전히 빗나감
• 이미 약 15만명의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왔거나 넘어오는 중

중공군 참전시 최초 작전방침

- 정주 - 구운리 - 흥남 : 맥아더라인(북진한계선)
덕천-영원 ~ 평양-원산 사이에 2~3개 방어진지 구축
• 평양, 원산~덕천, 영원선 사이 2~3개의 방어선 구축
• 첫 시기는 방어전만을 수행 상대의 일부분만을 섬멸
• 상대가 공격시 진지 전방에서 분할, 섬멸
• 적이 6개월 이내에 평양, 원산 고수하고 진출하지 않을 경우 중공군도 평양, 원산으로 나아가 공격을 실시하지 않는다.



최초작전방침 변경

- 기본계획(일정기간 방어전략) 폐기
- 진격해 오는 적을 기동하면서 각개 섬멸
→ 한반도의 정세 전환 시도/근거지 확보
- 전기의 장악
- 전역배치: 동부지역(견제), 서부지역(주력 집중)

중공군 작전목표와 단계

작전목표: “한반도로부터 외국군을 축출”

작전단계:

제1단계-유엔군의 한중 국경선 진출 저지

제2단계-총 반격으로 38도선 이북 회복

제3단계-38도선 이남 공격하여 서울 재점령,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다음 차후작전 준비

중공군 5대 공세

| 구분 | 기간 | 주요전투 |
|----------------|--------------------------|----------------------|
| 제1차 공세(10월 공세) | 1950.10.25.~11.5 | 운산, 비호산 전투 |
| 제2차 공세(11월 공세) | 1950.11.25.~12.8 | 장진호, 군우리 전투 |
| 제3차 공세(신정 공세) | 1950.12.31.~1951.1.8 | 1.4후퇴, 원주 전투 |
| 제4차 공세(2월 공세) | 1951.2.11.~2.15 | 횡성, 지평리 전투 |
| 제5차 공세 | 1단계(4월 공세) 2단계(5월 공세) | 사창리 전투 현리, 한계리 전투 |

중공군 투입 규모

중공군 편제 비교

| 구분 | XXXXX | XXXX | XXX | XX |
|-----|-------|------|-----|----|
| 중공군 | 야전군 | 병단 | 군 | 사단 |
| 유엔군 | 집단군 | 야전군 | 군단 | 사단 |

투입규모

- 중공군 1차 공세시 투입: 13병단(6개군 18개사단)

- 2차 공세시 추가 투입: 9번단(3개군 12개사단)

중공군 전개 경로



중공군참전 촉구 시가행진(북경) - 지원참군

압록강을 건너는 중공군

중공군을 환영하는 김일성

평강지역에 핵폭탄 가능성

중공군 침공

- 유엔군 압록강과 두만강 진격('50.10월 하순)
- 유엔군의 추수감사절 공세와 중공군 1차 공세
 - 10.24~11.23, 총공격감행, 서부-압록강, 동부-청진 방향 진격, 26일-초산, 11.1일-신의주 정거동 진격
 - 중공군: 10.25 전쟁 투입, 공세작전 감행
-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와 중공군 2차 공세
 - 11.24 한국군과 유엔군 공세
 - 11.25 중공군(13,9병단) 2차 공세(유엔군 기습)
 - 미 8군 우측방 주공지향 청천강 이남 진출,
 - 미군-장진호 1해병사단 포위, 군우리 2사단 괴멸로 후퇴

중공군 1차 공세작전 피아상황



• 10월 16일

선발대(42군 1개 연대) 투입

• 10월 19일

비밀리에 압록강을 도하하여 작전지역으로 급속한 진출

• 10월 21일

적극적 방어 → 적극적인 공세 작전으로 전환

• 10월 24일

추수감사절 공세 계획: 한국군과 유엔군의 총공격.

서부전선-청천강을 도하해 압록강으로 진격,

동부전선-함흥과 홍남 점령 후 장진호와 청진으로 진격

• 10월 25일

공세작전을 단행 - 6.25 전쟁에 개입한 이후로 최초로 실행한 작전

• 중공군

서부전선: 5개 군을 적유령산맥 남단에 전개 → 운산-회천 방향으로 공격

동부전선: 1개 군을 장진호 북쪽에 전개 → 한국군, 유엔군의 진격 저지

• 중공군의 경로와 엇갈려

한국군의 선봉부대(제6사단 7연대) 압록강변 초산에 도달 성공!

미 제24사단과 영연방 제27여단 정거동까지 진출.

이 외의 부대들은 중공군의 공격에 의해 붕괴되거나 포위•고립



중공군의 제1차 공세

추수감사절 공세 저지 성공: 한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을 멈추게 함
'섬멸적인 타격'을 입하는데 실패: 중공군의 군량, 탄약 보급 사정 악화
유엔군의 화력 증대
평더화이: 11월 5일 제1차 공세를 멈출 것을 명령

중공군 1차 공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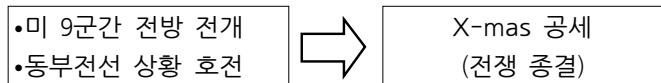
■ 중공군의 입장

- 한국군/유엔군 한•중국 경선 진출 저지
 - 후속증원부대 전개시간 획득
 - 차후 대규모 공세 위한 여건 마련
- #### ■ 유엔군의 입장
- 중공군 미개입 가능성 오류/ 불의의 기습
 - 전반적인 상황 재인식/차후방책 재검토 필요

유엔군의 정보판단(11.22)

- #### ■ 중공군의 개입 목적
- 수풍발전소 방호
 - 투입병력: 6만 명 이하
- #### ■ 중공군 기도
- 북한의 방어작전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

- 유엔군을 한•중 국경선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무력시위
- ※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세 없을 것으로 예상



크리스마스 공세 계획

무평리에서 8군과 연결, 적차단 포위섬멸후 북상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

제1차 공세에서 자신감을 얻은 중공군. '반격을 통한 공세로의 전환'

→주로 도로를 따라 공격하는 한국군과 유엔군의 노출된 측방과 후방을 공격하여 전세를 공세로 전환시키려는 계획

- 공중정찰 및 위력수색을 강화하고 중공군의 조직적 공격 개시 전에 대규모 공세를 펼쳐,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크리스마스 공세' 계획

공격 첫날 11월 4일

-미 제24사단은 경주를 점령

-한국군 제1산간 태천 일대 근방까지 진출



맥아더 원수의 크리스마스 공세가 성공할 것으로 보였으나, 이는 한국군과 유엔군의 큰 오판이였고, 이후 이 오판으로 인해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됨

중공군의 제2차 공세

■ 11월 25일 중공군의 제2차 공세 실시

■ 연합군 - 크리스마스 공세 시작하는 순간까지 중공군의 병력 숫자 제대로 파악 못함

■ 제2차 공세 당시 중공군

→ 조직적 지휘체계를 갖춘 30개 사단의 30만 명에 달하는 규모.

중공군의 제2차 공세의 성공 이유:

- 중공군이 적의 약한 진지, 병력에 대해 서슴없이 공격 실행
- 연합군 공군기 피하기 위해 주간공격 피하고, 야간공격 실시
- 야간 공격 시 정면 공격, 후방 교란, 퇴로 차단 후 진지돌파, 각개격파 실시
- 강한 방어력 분산 → 약하게 만들어 공격



중공군 2차 공세 경과
11.24 진출 원활
11.25 강력한 중공군 공격
묘향산맥 일대 저지
11.25 미25사 운산공격 저지
미2사 희천공격 저지
11.27 미2사 9연대 병력 반감
11.27 영월(한2군단) 피탈
※미 8군 우익붕괴 위기
11.28 청천강으로 철수 지시

중공군 2차 공세 결과 분석

- 중공군 입장
 - 2단계 작전목표(28선 진출) 달성
 - 보급지원 제한으로 추격 작전 한계 도달
 - 장진호 전투로 9병단 손실 심대
- 유엔군 입장
 - 크리스마스 이전 종전 무산: 2주간 250Km 후퇴
 - 심리적 충격 → 일본철수 불안감 생성

운동전 개념/배경

- 운동전이란
 - 움직이는 것 - 즉, 기동에 의존하는 작전
 - ※ 중공군은 이러한 적전형식을 운동전이라 표현
 - 우리 용어상의 기동전과 유사
- 수행개념
 - 진지전 회피 → 기동에 의한 적의 약점 타격
 - ※ 적정에 관한 수시 파악 요구 → 민중공작
 - 의도적으로 적을 움직이게 하고(부동상태)
 - 발견된 적의 약점 강타
- 채택배경
 - 국공내전시 공산군의 전력 약화를 극복
 - 병력과 화력, 보급 지원 제한 상태에서 적과 싸워 승리

중공군의 전술

중공군은 과거 국•공 내전에서 '거보적 전진•후퇴의 운동전'을 주로 사용
BUT 중공에 비해 기동공간이 좁은 한반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 ◆ '진지전(지역방어)과 운동전의 배합 방침'을 채택
 - '분리와 소멸'이라는 기본 개념, 미군과 한국군을 분리, 전력이 약한 한국군을 소멸, 미군의 측방을 노려 궤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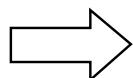
- ◆ 기도비닉을 위해 낮-은폐된 곳에서 숙영,
야간-공격을 감행하여 큰 전과를 올림
- ◆ 방어에 유리한 산악지대에 진지를 구축
- ◆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병력 '인해전술'을 사용함

유엔군사령부의 새로운 조치

- 크리스마스 공세가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에 좌절될 기미 보임
→ 맥아더 원수는 방어로 전환할 채비 갖추도록 함
- 미 제8군 - 청천강 남쪽으로 병력 집결 보고
미 제10군단 - 미 제1해병 사단의 포위, 퇴로 차단의 위험 보고

맥아더:

- ① 미 제8군사령관에게 우측방의 위험을 피할 만큼 후퇴를 지시
- ② 미 제10군단장에게 함흥-홍남의 해안교두보지역으로 병력 집결시킬 것 지시.
→ 미 제10군단이 해안교두보 확보 → 철수가 용이 함



연합군은 완전히 북진을 멈추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걷게 됨.

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새로운 조치

11월 30일

- 트루먼 미국 대통령 '원자폭탄 사용 가능성' 언급
영국: 중공과 일정한 관계 유지 위해 즉각적인 반대의사 밝힘
영국 수상 에틀리와 트루먼 대통령의 회담
→ 한반도에 핵무기 사용 금지, 유엔의 후원 하에 휴전 모색 합의

맥아더는 강력한 보복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트루먼은 전쟁의 확산여지가 높아 반대

맥아더 원수가 요구한 보복조치:

- 중공 해안 봉쇄
- 중공의 기간 산업시설을 해공군의 공격으로 파괴
- 타이완 군을 유엔군으로 참전 허용
- 타이완 군의 중공 본토 상륙 공격 허용

전쟁의 새로운 국면

(기본전략) 군사적 공세와 응징 → 정치적 협상에 의한 전쟁의 종결 → 휴전을 궁극적 지표로 삼는 정책으로 전환

유엔군의 정책과 전략

- 중공군 개입, 유엔군 북진 실패, 작전 전환?
- 유엔군사령부: 중공군 투입 30만명, 공세를 방어 전환 후에 상황 대응
- 워싱턴 조치
 - 맥아더: 만주폭격, 해안봉쇄, 대만 군대 투입 요청/거절
 - 11.30, 트루먼 대통령 원자탄사용 가능 언급
 - 한반도 전쟁확산 방지, 명예롭게 종식 제기
 - 한반도 전쟁: “군사적 응징”의 정책과 전략에서 “정치적 협상”에 의한 “휴전”으로 전쟁마무리 방향 전환

철수작전

- 맥아더: 미8군사령관 중공군의 포위 저지, 철수
- 청천강 철수
 - 미8군 청천강 남쪽 철수(12.1), 숙천-순천 방어선-군우리
 - 미2사단 마지막 철수, 중공군 42군 협공-평양방어, 중공군 추격-평양철수-38선 대치
- 장진호 철수 작전
 - 미 1해병사단 퇴로차단, 12.6일부터 2주간 철수
- 흥남 철수 작전
 - 원산피탈, 퇴로차단, 미10군단, 한국군 1군단 해상철수
 - 흥남 교두보구축, 12.15~24일 승선, 장비/탄약 폭파

청천강 철수작전

1. 1950년 11월 28일, 도쿄, UN긴급 회의
2. 맥아더 원수 → 워커 중장 (제 8군 철수명령)
3. 미 제10군단장-동부전선 한&미군 함흥, 흥남일대로 철수 명령
4. 워커 중장 - 청천강 남쪽 방어선 구축, 미 제8군 예하부대들 12/1 숙천~순천 방어선 구축

군우리 전투, 그리고 평양 철수

1. 한국군&UN군 vs 중공군 (청천강 일대 격전)
덕천지역 한국군 제7사단 전선 돌파 → 터키 여단의 투입(군우리 북쪽)
→ 중공군 제28군과 조우 → 1/3의 병력 손실 → 청천강 이북의 아군 주력철수의 시간확보에 기여
2. 미 제8군의 최종암호부대였던 미 제2사단이 군우리~순천간 계곡으로 철수 중에 중공군 42군 집중포화 받게됨(태형의 계곡, 인디언 태형장) → 미 제23사단 최대피해
→ 미 제8군 청천강 방어선 포기 → 순안~성천방어선 구축
(12/3) → 12/4일에 평양으로 철수
※ 38선 이남으로 철수(미 8군 사령관의 건의). 6.25 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감.

장진호 전투

1. 미 해병 1사단의 고군분투로 인해 12월 초순 하갈우리로 철수 성공, 사단 전체 집결
2. 스미스 소장의 지휘아래 12/6부터 철수 작전 돌입
3.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우는 계곡에서 공세를 받아 전멸 위기, 2주 동안 견뎌냄
4. 미 해병1사단이 이 작전에서 중공군을 저지함으로써 한국군과 유엔군, 피란민등 20만명이 남쪽으로 철수할 수 있었으며, 서부전선의 미 8군이 중국군을 방어 가능(홍남 철수작전의 원동력)
5. 장진호 전투로 인해 중국군의 함흥 지역 진출은 2주간 지연, 중국군 7개 사단은 궤멸적 타격을 입음.

미 해병 1사단의 전통과 긍지

1. 막강한 항공력을 보유했던 미 공군에서 공중철수를 제의했으나, 최후까지 활주로를 엄호하려면, 적어도 1개 중대를 남겨놓고 와야하기 때문에 사단장은 "우리는 전우를 두고 갈 수 없다" 라고 항공철수 제안을 거부
2. 장진호에서 홍남으로 철수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혹한(연하 20~40도), 중공군 8개 사단 포위망을 뚫고 험한 계곡 100Km 돌파 성공

11강 중공군 5월 공세

순서

- 흥남 철수 작전
- 중공군의 제3차 공세
- 유엔군의 제1차 반격 작전
- 중공군의 제4,5차 공세
- 중공군 5월 공세와 유엔군의 제3차 반격

흥남 철수작전(50.12.24)

- 정의: 흥남 철수는 193척의 군함으로 군인 10만 명, 민간인 10만 명을 남쪽으로 탈출시킨 사건.

흥남 철수의 작전이 시작된 날은 바로 대한민국이 평양에서 철수한 날이었다. 또한 흥남 철수 작전이 바로 1.4 후퇴의 시작이었다.

- 의의: 한국군과 UN군의 전력 상단부분 보존, 다음 작전의 밑거름이 됨
- 미군-3개 작전통제선, 125척의 수송선 보조 → 부산으로 후퇴준비
한국군과 미 제1해병사단 후퇴 → 교두보 확보를 위한 치열한 전투
- 미 제7사단, 미 제10군단, 제3사단을 중심으로 후퇴완료

민간인 91,000명 동행, 상당수의 탄약과 무기 전소

- ※ 절대 다수의 중공군 위협 하에 무사히 후퇴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군의 지원과 수많은 탄약 등의 포기가 있었기에 가능, 탄약보다 민간인을 먼저 생각했기에 가능했던 일
※ 미 10군단과 한국군 1군단이 철수한 후 탄약과 얼어붙은 폭약 400톤, 500발의 포탄, 그리고 200드럼의 유류를 후송하지 못하고 항만과 같이 파괴하였다.

리지웨이 장군의 작전 개념

미 합참의 전략지침(50.12.29)

- 더 이상 증원 공s란: 유엔군 피해 최소화
- 적에게 최대한 출혈 강요, 저항 계속
- 군사적으로 한계 도달 시 일본으로 철수

부임후 중공군 공세 분석

- 중공군 1차, 2차 공세 분석
 - 1차 공세: 10.25~11.5(10일간)
 - 2차 공세: 11.25~12.15(20일간)
 - 진출거리: 40~50Km
- 보급지원의 한계로 2주 이상 공세 제한 간파
- “축차진지상에서 방어작전 반복”
 - 38도선 ~ 부산까지 공간지역 최대 활용
 - 6개의 축차진지준비
 - 준비된 진지 방어작전 실시: 피해 최소화
- ※ 6개의 방어저지선이 아님 → 중공군 최대 출혈 강요
→ 작전한계점 도달 즉시 반격작전 전환

축차진지 방어선



중공군 3차 공세 배경

■ 팽덕회의 판단

※ 2~3개월의 경비와 휴식을 통한 춘계공세 준비

■ 모택동의 지시

• 1, 2차 공세의 전과를 확대

• 유엔국들 간의 약화된 결속력 이용

※ 영국의 휴전 제의, 정치적 상황 우선 고려

☞ 작전개념: 서부전선에 주공 지향

• 유엔군 1~2개 사단 포위 섬멸, 서울 점령

※ 전쟁의 주도권 장악한 후 차후 작전 준비

중공군의 제 3차 공세 준비

1. 연합사령부(중공군, 북한군 통합 지휘) 설치
2. 제19병단 병력 보충, 전투 투입 준비
3. 원활한 보급 위해 선로, 도로 보수 위한 공병 증강
4. 북한지역 조직적 현지 조달로 3만 톤 식량 확보
5. 대규모 공세 대비 기동, 작전 실시

중공군의 제 3차 공세와 1.4 후퇴

중공군, 1950년 12월 31일,

단시간공격준비사격 후 전 전선 공격 개시 (한국군 제1사단, 제6사단 집중 공격)



리지웨이, 중 인해전술 + 한강 장애물 기능 상실

적에게 포위 위험 고려, 한강선 → 평택 → 안성선 철수명령: 1.4 후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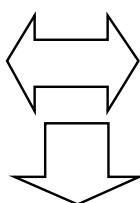


6일, 평택-안성 방어선 구축했으나,

마오쩌둥의 목표가 '서울점령'이라 중공군 남하 중지/ 북한군 활동 재개

북한군의 공세 및 원주쟁탈전

대규모 북한군(태백산맥)
+
기존 유격대
점령: 원주-평창, 영월-단양



북한군이
충주-대전까지 진격 시
한국군, 유엔군
후방 차단됨
원주!

미 제2사단 원주 탈환

북한군 단독 남진, 전력 한계 + 미 제2사단 전투력 회복, 역습
→미 제8군 고무, 차기 반격 위한 계기 확보

중공군 3차 공세 경과

제 1단계(50.12.22~30): 사전 침투

•12.22 인제/양구에서 홍천방향 침투 → 양덕원리까지 침투

※미 8군 조치 → 원주의 미 2사단 홍천 투입

제 2단계(50.12.31 - 51.1.5): 동부전선

•북 2,5 군단은 한국군 2,3 군단 돌파 서부전선 측방 위협

•미 10군단 투입, 한2,5,8사 통합지휘 양평-홍천간 방어

•한 1,3군단은 홍천-주문진간 방어

제 2단계(51.1.1 - 1.5): 서부전선

•1.4 un군 서울에서 철수(1.4후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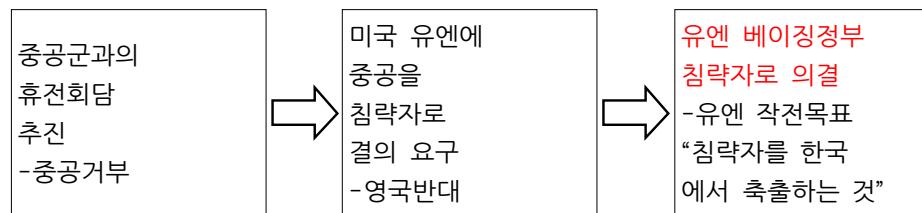
→홍천피탈 보조진지선 점령 실패

•1.6 평택-원주-삼척선으로 철수

중공군 3차 공세 결과, 교훈

- 작전목표: 유엔군 주력격멸 보다 서울지역
- 한국군과 유엔군 서울 조기철수 주력 보존
- 서울 점령 후 북한군과 함께 원주-충주-대전 방향 투입 시 수습 어려운 상황 가능
- 후속부대 증원 전, 공세감행 지속능력 저하
- 서울점령 목표, 원주호기 활용 못함
- 유엔군: 중공군 계속 공세 시 후퇴 거듭 입장
- *정부 중공군 공세 지속 시 한반도 포기 고려

중공에 대한 휴전제의



유엔군, 반격을 준비하다

◎‘울프하운드’ 작전

리지웨이 중장 → 사기를 올리기 위해 사라진 중공군을 찾다

For 중공군의 배치, 규모, 잘차 기도 파악

미 제 1군단예하 25사단 27연대가 위력수색부대선정

평택-오산 연결하는 도로 따라 수원진입 ▶ 중공군 발견

유엔군의 제 1차 반격

◎‘선더 볼트’ 작전

-울프 하운드 작전보다 더욱 강력. 신속 실시

-미 제1군단, 제9군단이 각각 1개 사단 앞세워 통제선 점령

-미군 1개사단, 한국군 1개 연대 추가 투입

→ **한강수색**

-1월 25일 오산-여주 선 공격=2개월 만의 공격,

다시 한번 반격해 나가는 전환점

-중공군의 미약한 저항

미 1,9군단(안양-양평)

‘주력을 전방에 투입하는 적극적인 공격으로 전환’

-2월 10일 서울바라봄 but 탈환 서두르지 않음

-약점 알게 됨 - 중공군 보급 취약

- 수도 회복 위한 공격

동쪽 원거리에서부터 포위해가는 전략

동해안 항구, 비행장과 동해안 도로의 요지 대관령, 횡계확보

유엔군 1차 반격작전(51.1.15~2.10)

분쇄기식 전술(Meatgrinder)

•중공군 침투 및 우회 거부

→5개 통제선 설정(군단장 승인)

•중공군 전투력 분쇄 의미

중공군 3차 공세 및 유엔군 1차 반격작전 결과 분석

중공군 입장

■서울점령 목표 달성

■보급제한으로 추격작전 한계 도달 정비 필요

■유엔군의 즉각 반격작전(자성전법)으로 당황

유엔군 입장

■수도 서울 피탈

■중공군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 회복

■“한반도 포기 후 일본 철수” 불안감 해소

중공군 4차 공세

■배경

춘계공세를 위한 휴식 및 재정비에서 유엔군의 즉각적인 반격작전으로 방어목적의 공세 실시

3차공세를 통해 화력과 기갑전력의 발휘가 용이한 서부전선에서 미군과의 전투 불리점 인식

■작전개념

•서부전선: 견제

동부전선: 유엔군 1-2개 사단 유인하여 포위섬멸,

서부전선의 유엔군 우측방 위협

※서부전선 유엔군의 진출 저지를 위한 공세

◎횡성전투의 대처방안

리지웨이 중장은 지평리 원주를 연결하는 새로운 방어선 설정

2월 12일 유엔군 원주일대 방어선 점령

→ 지평리가 유엔군의 새로운 방어선의 중심 지역

◎중공군

2월 12일 지평리 남쪽 곡수리 차단

2월 13일 중공군의 공격 시작

전투는 2월 15일까지 계속되었고 유엔군은 가까스로 진지사수

중공군은 베이징의 마오쩌둥이 명령 = 미국과 달리 현장상황을 잘 알지 못함

제 4차 공세는 중공군, 6.25전쟁 개입한 이래 최초의 패배

→ **유엔·한국군의 자신감 심어주는 계기**

4차공세 기동계획

- 중 40, 66군, 북2개 군단: 한8,3,5사단 포위 공격
- 중 38, 50군, 북1군단: 수원방향 견제 공격
- 중공 39군: 미23연대(지평리) 포위 공격

4차공세 작전경과

(51.2.11 ~ 2.12)

- 서부전선: 수원방향 견제 공격
- 중동부전선: 횡성일대의 한8,3사단 주력 일부 섬멸
※원주_제천_평창에 연결하는 돌파구 형성
- 미8군: 미2사단 원주지역 투입

(51.2.12 ~ 2.13)

- 포위망에서 철수한 3,5,8사단: 돌파구 첨단지역에 배치
- 한 7,9,수도사단: 영월-삼척선 재배치
- 미7사단(재편성 중): 영월지역 투입

(51.2.11 ~ 2.14)

- 미38연대: 문막-지평리 투입간 차단당함
- 2.13 지평리 포위공격(미23연대 전투단): 릿지웨이 '사수'지시

(51.2.14 ~ 2.18)

- 2.15 미5기병연대 투입(23연대와 연결)
- 2.16~18 중공군 공격기세 약화 / 공세 종료

유엔군의 제2차 반격

리지웨이 중장은 적에게 시간적 여유 주지 않고 즉각적 반격작전 계획함

'킬러작전' (2.20~3.6)

: 적의 주력을 포위 섬멸하는 것이 목적

2월 21일부터 **미 제9군단**은 원주-횡성 방향

미 제10군단과 **한국군 제3군단**은 제천-평창 방향으로 공격

유엔군 반격

- 한국군 유엔군 서부전선 위력수색, 동부 게릴라 차단 소탕, 반격작전 마련
- 한강 재 진출
 - 미 1,9군단 한강, 수원-여주 수색작전, 재 반격 전환
 - 공격부대 진출: 8Km 간격 5개 작전통제선 설정
- 유엔군 작전
 - 3월 초 한강-횡성-강릉 선 진출, 전선 돌파구 형성
 - 적 전선 양단 서부 중공군, 동부 북한군 분리,
 - 서울 양익포위 전략수립 → 전선 절단 분리-절단작전
 - 미 9군단 주축 덕소-가평-춘천-한계 진출

그러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

- 기온의 급격한 상승
 - 때때로 오는 비 때문에 항공정찰, 항공지원 불가능
 - 하천의 유빙 -도하 불가능
 - 도로 및 철로의 두절 사태 속출
 - 24일 헬기 추락으로 정찰 중이던 제9군단장 무어 소장의 사망
 - 험준한 지형을 이용한 북한군의 거센 저항
- 3월6일 결국 유엔군은 예정된 목표선에 도달하여 킬러작전 종료
킬러작전 결과로 한국군과 유엔군은 한강-횡성-강릉을 연결하는 선까지 진출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 **언제 서울을 탈환할 것인가!!**

미 제8군사령부 - 현 전투력으로 서울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많다고 판단

‘절단작전’(3.7~30)

횡성-홍천-가평 및 춘천방향으로 대규모의 돌파구를 형성하여 서부의 중공군과 동부의 북한군을 분리시킨 후에 **서울을 남쪽과 동쪽에서 양익, 포위 하는 전략**

미 제8군은 절단작전에서 중부의 미 제9군단이 주축이 되어
서울 동쪽의 덕소-가평-춘천북방-한계를 연하는 목표선 까지 진출하도록 하였다.

미 제8군은 5일간 비축물자 확보한 후에
험준한 지형으로 진출이 지연되었던 미 제9, 10군단의 일부 부대들도 진출

한국군과 함께 1951년 3월 15일 **서울 재탈환!**

유엔군 2차 반격작전

■ 중공군 4차 공세가 종료되면서 유엔군의 2차 반격

→ 무척 괴로워함(경비 및 휴식 부족)

※ 중공군 총사령관 팽덕회는 “자석처럼 착 달라붙어서 반격을 해온다고”라고 표현

→ 유엔군의 반격을 “자성전법”

killer 2.20~3.6 칠러

작전목적: 중공군 전비와 휴식시간 주지 않기 위함

작전결과: 동부전선은 횡성 ~ 강릉을 연하는 선 진출

ripper 3.7~30 절단

작전목적: 중부전선에서 중공군 주력 격멸, 서울 탈환

작전결과: 3.15 서울 탈환, 문산 ~ 춘천 ~ 양양선 진출

Rugged 작전(4.5~10)

작전목적: 중공군 춘계공세 대비 방어에 유리한 지형 확보

작전결과: 캔사스선 확보

Dauntless 작전 (4.11~21) 베거운

작전목적: 적 병력과 보금물자의 집결지인 철의 삼각지대 확보

작전결과: 철의 삼각지대 일부인 철원까지 진출

중공군 4차 공세 및 유엔군 2차 반격작전 결과 분석

중공군 입장

■ 횡성일대 한국군 8사단 주력의 일부 포위섬멸

■ 미 23연대 지평리 방어: 유엔군 진출저지 실패

※ 4차 공세 후 3, 19병단 추가 투입, 병참선 단축

→ 추가공세의 여건 충분히 조성

유엔군 입장

■ 서울 탈환후 38도선까지 진출

■ 중공군에 대한 충분한 자신감 회복

■ 다음 공세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 조성

유엔군의 38도선 재 돌파

미 제8군사령관인 리지웨이 중장에게 38도선의 재 돌파가 위임

38도선 대 돌파는 전술적 차원에서 유리한 방어선을 확보함과 동시에

차후 휴전에 대비하여 3도선 북방에 진출했다는 전쟁의 명분을 얻기 위함이지

대규모 북진작전이 아님

캔사스선을 확보한 후 한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이 공세를 준비 중인 평강-철원-김화를 연결하는 **철의 삼각지**를 공략하고자 함
철의 삼각지 공격이 강력한 저항으로 저지되자 미 8군 사령관이 각 부대에
'적의 공세에 대비하여 방어로 전환할 것'을 명령하고 공격을 멈추었다.

다시 불거진 휴전 방안 모색

- Q. 왜 유엔군은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도 계속 진격하지 않았을까?
A. 압록강까지 진격하면 더욱 거세어진 중공군의 저항에 부딛칠 거라 예상
A. 전쟁이 장기전으로 휘말림으로써 힘을 낭비해 냉전체제의 불균형초래를 걱정
→ 휴전으로 일단락 시키고자 방어에 유리한 감제고지를 확보한 후 방어진지 구축

전선 사령관 교체

1951년 3월에 접어들며 38도선을 향해 진격하자 대한민국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시작

•트루먼 대통령: 대한민국의 범위는 38도선 이남 (종전을 위한 전략을 추구)

•맥아더 원수: 대한민국의 범위는 한반도 전역 (북진 전략)



•1951년 4월 11일 맥아더원서가 유엔군 사령관에서 해임되고
미 제8군 사령관 리지웨이 중장이 임명됨

- 새로운 미 제8군 사령관에는 밴 플리트 중장이 임명됨
- 새로 부임한 유엔군사령관과 미 제8군사령관의 최대 관심사는 소련의 개입 가능성
- 당시 소련은 중공군의 제5차 공세가 시작된 1951년 4월말까지 북한이나 중공을 적극적으로 돋지 않았음

소련의 의도와 입장

당시 소련이 전쟁에 적극적인 개입을 막설였던 이유

- ①. 중공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소련에게 달갑지만은 않음
- ②.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로 국력이 약화

③. 당시 소련의 기술수준으로 제작된 무기는 미국의 무기를 당해 낼 수 없었다.

→ 소련의 확대개입 가능성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와 미 제8군은 그 동안 비교적 용이하게 작전을 구사할 수 있었음.

중공군 5차 공세 (춘계 1차 공세, 4월 공세)

중공군의 제 5차공세(4월공세)

자유진영이 휴전방안을 마련하는 중 공산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철의 삼각지대에 대규모 병력과 보급품을 집결

4월 22일 공산군은 전 전선에 걸쳐 공세를 시작

제 5차 공세(4월공세)/(중공: 5차 전역 제1단계 공세)가 시작됨

공산군은 이번 작전에서도 한국군 사단을 먼저 돌파한 후 후방으로 진출하여 유엔군의 병참선을 차단하려 하였음

서부지역: 한국군 제1사단(파평산)
영국군 제 29여단(설마리)
→방어 성공

중부지역: 한국군 제6사단(사창리)
→붕괴

2개월간 중공이 준비한 제5차 공세는 한국군과 유엔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저지되었음**

중공군 5차 공세 배경

■상황평가

- 3, 4차 공세이후 일방적인 군사적 승리 불가능 인식
- 작전목표 변경 “주도권 장악후 휴전협상에 임한다.”
- 2월말부터 2개 병단 증원(3, 19병단), 병참선 단축

■작전개념

- 주공: 서부전선(문산 - 춘천지역)
*유엔군 2-3개 사단을 포위섬멸
- 조공: 동부전선(춘천 - 동해안지역)

51년 4월 상황

- 중공군 대규모 공세진후 포착: 철의 삼각지대 등
- 밴플리트 장군 의도: 반격작전 계속, 서울과 현전선 고수
※휴전회담 → 수도 서울의 전략적 가치 변화

미 8군의 조치

- 밴플리트 장군(4.11. 8군 사령관)의 의도
-반격작전 계속
-서울 고수(미 8군 예비: 미 1기병사단)

- 서울고수 이유
-한국 국민 및 군인에 대한 심리적 영향
-보급시설 이동간 군수지원의 공백
-수송력의 낭비 및 군수품의 망실 불가피
-적 공격시 마다 철수시: 적 사기 양양
-적에게 휴전협상을 강요 곤란 (주도권 상실)

4월공세 기동계획 (51.4.22~30)

*3개 군으로 한1사, 영 29여단 돌파
-2개 군 포천방향 공격 우익 포위
-1개 군 의정부방향 우회
→퇴로 차단/증원 저지
→미24,25사단 포위 섬멸

*6사, 미24단 돌파
-일부 가평 진출 작전적 절단
-일부는 좌익포위 19,3병단과 협조
→미 24,25사단 포위섬멸

4월공세 작전경과(51.4.22~26)

*4.22 한6사단(사창리) 돌파구 형성
-영 28, 미1사 가평북방 투입(3일간 저지)
*4.26 가평피탈 → 경춘도로 차단
-홍천강 이남으로 철수
*서울 북방 No-Name선으로 철수
(수색 - 구파발 - 홍천북방 - 현리 - 양양북방)

중공군 6차 공세 (5월 공세)

중공군은 한 차례 공세가 끝난 후면
반드시 다음 공세까지 약 2-3개월에 걸친 준비기간을 가져옴

→중공군의 다음 공세를 6-7월로 예상함
But, 전선지역에 중공군 54만여 명, 북한군 20만여 명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만주에도 그들의 지원군 75만 명이 대기하고 있었음.

이와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공산군은 추가보급만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대규모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
미 제8군 사령관 밴 플리트 중장은 현 방어선에서 철수한다면 적의 사기를 올려주어
차후 휴전협상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지장이 따를 것으로 판단함
→ 현 방어선을 주저항선으로 설정함

중공군은 5차 전역 제2단계 공세(**제6차공세/5월공세**)'를 계획
서울점령이라는 정치적 목적보다는 중/동부 산악 지역에서 한국군 사단들을 격멸한 후에
고립된 미군을 섬멸할 기회 마련
→즉, 적 부대 격멸이 작전목표
주공의 위치가 중서부에서 중동부로 바뀜

중공군 6차 공세는 '3중 양익 포위작전'

첫 번째 포위망: 중20, 북5

두 번째 포위망: 중27, 북2

세 번째 포위망: 중12, 북한군

중공군 6차(5월)공세

작전개념:

- 동부전선: 주공투입 한국군 사단 포위섬멸
- 중부전선: 종심깊은 진출, 동서 연계성 차단
- 서부전선: 광경면 견제

5월 공세 기동계획

기동계획

- 동부(9병단): 한국군 4개사단 삼중 포위섬멸
- 중부(3병단): 미 10군단의 지원 차단(연계성 차단)
- 서부(19병단): 광경면 견제(고양-가평:69Km)

중공군 6차(5월)공세경과

주공: 9병단

- 5.16일 공격 개시
 - 미 10군단예하 한국군 5,7사단 돌파후 종심 진출
 - 한국군 3군단 퇴로인 오마치 고개 차단
- => 한국군 3군단 현리 포위 와해

동부전선

- 5.18일 홍천 북방 - 하진부리 - 대관령 대형 돌파구 형성
 - 미 해병 1사단과 미2사단이 홍천 북방, 한국군 1군단이 대관령에서 견부 고수
=> 돌파구 확장 방지
 - 한국군 3군단 해체
- ※3사단 → 한국군 1군단, 9사단 → 미 10군단에 배속
- 미 3사단과 187공수연대 투입: 돌파구 확장 저지.
- 반격작전 준비

중서부전선

- 19병단 예하 63군 용문산 한국군 6사단 공격
 - ※한국군 6사단 경계부대 효과적 운용 중공군 격퇴
 - 중공군 5월 공세가 종료되는 5.20일경 전선
- 수색-홍천-하진부리-주문진을 연하는 선

한리-한계 전투 재구성

중공군의 공격 개시

5.16일 상황: 최초배치

-5월 16일 16:30, 중공군 공격준비사격 개시

-17:30, 중공군 공격 개시

방어지역 내 돌파구 형성

5월 16일, 17일 오전 상황

-중공군, 한국군 제7사단 집중 돌파 및 중심기동 (오마치 고개 차단)

-한국군 제9사단 측후방 노출 및 퇴로 차단

중공군 돌파구 확장

5월 17~18일 상황

-한국군 제7사단, 제5사단 접촉유지 - 철수 - 재집결 - 방어 반복(중공군 중심기동 지연)

-한국군 제3군단 방태산, 창촌, 계방산, 속사리 퇴각(대량피해)

-미 제2사단 병거힐 전투

-한국군 제1군단 한계령 전투

미 제10군단의 돌파구 확장 저지

5월 18일~20일 상황

-미 제2사단 좌측 견부 확보

-한국군 제1군단 우측 견부 확보

-미 제3사단 운투령 공격/확보

유엔군 반격작전 여건 마련

★UN군 3차 반격 작전★

중공군의 공세로 형성된 돌파구. 측면을 타격하여 퇴로를 차단한다면 중공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유엔군의 제 3차 반격

리지웨이 유엔군 사령관이 운두령 승리로 중골군을 위기에 몰아넣자

즉시 반격으로의 전환을 명령함

동쪽의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후퇴할 징후를 보이는 중공군의 후방을 차단하고 신속한 반격을 감행함

→ **유엔군의 제3차 반격은 대성공을 거둠**

제3차 반격작전으로 인해 캔사스선을 확실하게 다시 확보할 뿐만 아니라,

한층 더 강력해진 '말뚝을 박는다'는 뜻의

'파일드라이버 작전' 을 구사하여 애초 캔사스선의 전초선으로 선정했던

와이오밍선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와이오밍선: 캔사스선 북방의 10~20Km를 연하는 선

유엔군 3차 반격작전 (51.5.21 ~ 5월 말)

작전개념: 중공군 공세로 형성된 돌파구 측방에서 타격하여 퇴로를 차단, 중공군에게 결정적 타격

UN군 3차 반격 작전

- 5개의 특수임무부대 편성 본격적인 반격작전 개시
- Kansas선 재확보(5.21~31)
 - 목적: 중공군의 퇴로차단/격멸
 - 방법: 기계화 부대 중심의 TF편성/운용
- Pile Driver 작전(6월초~15)
 - 미 합참 지침: Kansas선 영구 확보/ 이후 국지적인 공격작전만 실시
 - 목적: Kansas선 방어력 보강/ 비무장지대 고려
- 철원 - 금화 - 양구 - 간성을 지나며 작전

● 51.6.23 UN소련대사 말리크 휴전협상 제의

● 7.10일 개성에서 첫 회담개시, 반격 중지

중공군 5차 공세, 유엔군 반격

- 중공군 5차 공세: 4월 5월 공세 - 대 참패
 - 4월 공세: 서부전선 타격 서울외곽 진출
 - 5월 공세: 중동부전선 타격 하진부리 돌파구 확장
 - 4,5월 공세 인적 손실 재기 불능
- 유엔군 전선 돌파, 공세작전 전환
- 중동부전선 국군 3군단 현리 패배 해체
- 양측 휴전정책 모색
- 유엔군 캔사스선(문산-양양)반격 한정, 휴전 작전
- 유엔군 북진한계선 설정
- 공산군 측 휴전회담

중공군 5차 공세 및 유엔군 3차 반격작전 결과

중공군 입장

- 현리지역 한국 3군단 포위섬멸
- 능력 초과 공격으로 주도권 장악(작전목적) 실패

※ '너무크게/멀리, 10만 명 손실'

유엔군 입장

- 중공군 공세 격퇴로 부분적인 주도권 확보
- 공산군 측 휴전회담 유도로 정치적 목적 달성



중공군 전술 특징

- 피실격허 (강한 곳은 피하고 약한 곳을 공격)
 - 섬멸전 추구
 - 적극적인 유인작전 구사
 - 중공군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판단
 - 자신들의 강점으로 적의 약점을 타격하려고 노력
- ※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준수

12강 전선교착과 휴전협정

순서

- 협상을 위한 인식의 변화와 예비회담
- 쉽지 않은 협상, 그리고 군사분계선
- 51년도 후반기 군사작전의 특징
- 포로송환 협상과 백마고지 전투

협상을 위한 이식의 변화와 예비회담

휴전회담 배경과 원인

- 쌍방 전쟁, 협상 해결 정책적 단안 (51년 7월 초)
- 양측 휴전협상 제의 과정
 - 유엔: 남침 중지 즉각 철수, 중공군 개입 38선 제한
 - 소련: 유엔군 반격 휴전 제의(외국군 즉각 철수)
 - '51.3월 하순 유엔군 → 중공군 휴전회담 제의, 끊살
- 전선교착과 휴전 협상
 - 전쟁상황: 국지적 제한전쟁, 확전의 기로
 - '51.6 쌍방 협상정책 전환, 유엔-미국, 공산측-소련
- 양측 협상목표와 전력 증강
 - 쌍방 휴전 대비 방어선 강화, 부대 재편선/정비

피아 군사정세 판단

| 유엔군 | 공산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1. 진격능력보유 → 많은 희생※ 총 예상손실: 10만명 이상2. 압록강 진출 → 장기전3. 중국 내륙 진출 → 소련 개입※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4. 미 국력소모 → 세력균형 붕괴 | <ul style="list-style-type: none">1. 유엔군 섬멸 불가능 → 산악지대 이용 방어 가능2. 소련 원조 불충분3. 국가이익에 부적합 |

피아 군사상황 공통점

- 일방적인 군사적 승리 불가
 - 전쟁이 장기화 경우 피해가 크다는 결론 도달
 - 각자 유리한 휴전만이 바람직한 대안 인식
- 빠른 시일내에 휴전협정 조인 낙관
- ※ 휴전협정 조인: 53.7.27 (만 2년)

협상을 위한 인식의 변화와 예비회담

1. 협상이전의 각국 상황

미국: 적절한 휴전 협상 하에 전쟁을 종결/전쟁 이전의 상태로 복귀

소련의 전쟁 개입을 두려워하여 전쟁을 끝내려 함.

한국: 한국 정부와 민족은 통일의지가 확고하였으며 반 휴전 운동이 확산

중국: 막대한 물적/인적 손실로 대규모 공세지양 및 소규모 강세 전환

북한: 전쟁이 장기화되어 북한의 피해가 커지자 가장 절실히 휴전을 원함

2. 예비회담

1951년 5월31일 과 6월 5일에 미국은 소련과 두 차례 걸친 접촉

-6월 27일 소련이 미국의 제의를 받아들임

-6월 30일 공산국 측에게 라디오를 통해 회담 장소 통보

7월 8일 예비회담에서는 대표명단의 교환, 정식회담의 개최, 상호 안전에 관한 사항 등 논의

7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성에서 본 회담 개최

쉽지 않은 협상, 그리고 군사분계선

1. 협상에 임하는 각국의 자세

UN vs 소련

7월 10일 아침 휴전협상 제1차 본 회담 시작

쌍방은 협상에 임하는 자세에서 큰 차이

UN: 협상의제 채택, 군사분계선 설정, 휴전 감시 방법/ 기구의 설치

소련: 적대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

한반도로부터 외국군의 철수가 우선이라는 정치적 주장

2. 군사분계선을 설정하다

•공산군측이 회담불참을 선언

유엔군측은 군사적 압력을 가해 공산군 측을 회담장으로 불러낸다는 방침 수립

휴전회담이 중단된 채로 1951년 10월이 됨

이 기간 중 한국군과 유엔군은 전선의 요충지를 하나하나 점령(고지쟁탈전의 시작)

•공산군 측은 결국 회담 재개를 요청

'현 접촉선을 기준하여 군사분계선을 설정 한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음.

그러나 개성을 두고 양측은 공방을 펼침

한국: 전쟁 전부터 남한이었으며 고려의 도읍지라는 역사적인 상징성 서울 방어의 중심, 인삼의 집산지 등 다방면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

북한: 인민들에게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소한 개성만큼은 소유해야만 했음

- 같등이 계속되자, 회담 자체가 결렬될 것을 우려한 유엔군은 개성을 양보
'현재의 접촉선을 변경함 없이 군사분계선으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
1951년 11월 27일 현재의 휴전선과 흡사한 군사분계선이 확정
완전한 휴전협정은 이 시점에서부터 1년 8개월이나 지난 후에나 체결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유엔군측 주장)

- 보상개념: 현 접촉선(51.7월 고성-화천-철원-연천-고량포) 30~40Km북쪽
- 주장이유
 - 휴전선: 일시적인 적대행위 중지선
 - 군사분계선: 피.아 군사력 수준 고려 보상
※유엔군의 절대적인 제공/제해권 보상
 - 38선: 방어에 불리, 북한군의 재침 가능성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공산군측 주장)

- 원상복귀 개념: 38도선
(남쪽으로 10Km 비무장지대 설치)
- 주장이유
 - 무승부전쟁: 전쟁의 결과 득실 부당
 - 38선은 전쟁전부터 모든 국가가 인정한 경계선
 - 최초 휴전협상을 제의시 38선 전제로 제의
 - 비무장지대는 38선을 따라 20Km폭
※영토의 재조정 없이 원상태로 복귀

군사분계선 설정문제 합의

- 51. 8. 22 회담 중단
- 51. 10월: 추계공세, 항공압박 → 공산측 피해 증가
- 51. 11. 27 군사분계선 설정 합의
 - 군사분계선: 현 접촉선 설정
 - 명시된 시간에 2Km씩 철수하여 비무장지대 설치
※군사작전은 현 접촉선(잠정 군사분계선)을 지키는 방어위주 작전으로 진행 → 교착전 심화

휴전협상 중 전투 원인

- 휴전협상: 51.7.10~ 53.7.27→ 치열한 전투
- 유엔군 측 협상 태개수단, 공산군 측 진지 탈환
- 쌍방 휴전회담 수용 배경
- 유엔군: 북진-최담지연은 인적 물적 피해, 군사적 불리. 전쟁지속 막대한 비용, 인명피해
- 공산군: 중공-10만 명 인명 피해, 소련의 지원 약속 불이행,
 소련- 한국전쟁이 미 소간 확전 원치 않음
- 휴전회담 중 전투
- 협상의 요구조건 충족과 주도권 장악
- 휴전 후 방어유리 고지선점 위한 고지쟁탈전

쉽지 않은 협상, 그리고 군사분계선

3. 고지쟁탈전의 원인 및 전개

양국은 유리한 상황 조성을 위한 '제한공격'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임
유엔군: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의 수단
공산군: 휴전회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빼앗긴 일부 진지를 탈환함으로써 군사력을 과시하여는 목적

결국, 양측 모두 휴전협상 후 생길 군사분계선을 조금이라도
자신 쪽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고지쟁탈전을 전개한 것

<유엔군>

미 8군 사령관 밴플리트 중장은 무모한 고지쟁탈전을 지양하고 중동부 전선에서
대규모의 공세작전(맹조의 발톱 작전)을 수립 상황의 반전 시도,
그러나 휴전회담의 영향을 생각한 리지웨이 중장은
휴전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지상 작전만을 승인.

<공산군>

서부전선에서는 유엔군의 화력 때문에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중동부의 산악 지역에 집중

중동부 전선은 고지쟁탈전의 격전지가 되었고
351고지, 편치 불, 피의 능선, 단장의 능선, 수도고지, 저격능선, 백마고지 등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임

51년도 후반기 이후 군사작전

- 51년 유엔군 하계공세, 추계공세
- 52년 고지 쟁탈전(백마고지)
- 53년 중공군 최후공세 (금성지역)

쉽지 않은 협상, 그리고 군사분계선

4. 983고지(피의 능선)의 전투

983고지를 장악한 북한군이 유엔군의 후방지역인 인제 일대까지 관측하면서

포격을 하기 때문에 유엔군에게는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감제 고지

1951년 8월, 북한군의 주보급로인 양구 북방의 문등리 † 계곡과 사태리 계곡을 감제할 수 있어 983고지를 **한국군이 제한적이 공세** 실시

한국군 제5사단 제36연대가 선공을 실시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점령 곤란. 983고지의 가장 우측에 자리하고 있는 773고지와 가운데의 940고지를 먼저 공격하고 기습적으로 983고지를 향해 공격

8월 22일, **5사단 36연대는 마침내 고지 점령**

북한군이 역습을 시도하여 26일에 다시 983고지 피탈

미 제2사단 9보병연대가 합류, **9월 5일 오후 2시경, 한국군은 93고지 점령**

| 구분 | 한국군 제5사단 제 36연대 | | | | 미 제2사단 | 북한군 |
|-------|-----------------|-----|------|-----|--------|-------|
| 인원(명) | 소계 | 전사 | 부상 | 실종 | | |
| | 2772 | 326 | 2032 | 414 | 1700 | 15000 |

983고지를 피의 능선이라고 부르게 된 까닭은 당시 전투상황을 목격했던

미군 성조지의 종군기자들이 **'피로 얼룩진 능성'** 이라고 하며

983고지전투를 **'피의 능선전투'**로 보도하면서 붙여지게 되었다

5. 한국군과 유엔군의 추계작전

밴 플리트 장군은 다시 '맹조의 발톱 계획'과 유사한

대공작전인 **'추계작전계획'**을 수립하여 리지웨이 사령관에게 건의

그러나 이번에도 이전과 같이 제한된 지상작전만 승인

한국군과 유엔군은 **단장의 능선전투와 백석산 지구전투**를 펼쳤고,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 끝에 고지를 점령

그리고 결국 이때의 전선이 큰 차이 없이 이후 **군사분계선으로 확전**

51년도 후반기 군사작전(유엔군의 하계공세: 983고지 피의 능선)

•목적: 휴전회담 촉진 / 전선의 굴곡 조정(미9,10, 한1군단)

•7월공세: 30년만의 호우로 중단

•8월공세: 동해안 남강일대 확보, 미10군단: 피의 능성 겨우 확보

※장마기간중 진지강화로 효과 감소

•전과/피해: 회담장소 개성 → 판문점, 2772명 손실(전사 326)

랭글러(Wrangler)계획(51.9)

교착된 현 전선 타개 / 휴전후 유리한 방어선 확보 금화 → 통천

51년도 후반기 군사작전(유엔군의 추계공세: 단장의 능선)

•휴전회담 재개 유도

•철의 삼각지대일대의 전선 북상 추진

51년도 후반기 군사작전 특징

- 군사작전이 휴전회담을 뒷받침
→ 휴전회담: 주연, 군사작전: 조연
- 유엔군의 제한사항
 - 방어만으로는 휴전회담 촉진 곤란
 - 대규모 공세나 전쟁확대 불가: 판정승 추구
 - 군사작전: 교착전 양상
- 교착전이 공산군측에 미친 영향
 - 견고한 진지구축으로 화력 열쇠 상쇄
 - 보급지원의 취약성을 보완
 - 개성 중립화로 전장을 중동부전선 국한시켜 상황 유리

중공군의 갱도진지내부

- 중공군은 갱도진지를 구축하여 내부에 지휘소 탄약고, 통신대, 목욕탕, 식당, 도서관 및 이발소 등을 갖추고 있었다.
- 좌상: 땅굴내 취사장에서 만두를 빙고있는 모습
 - 좌중: 땅굴내 도서관 • 좌하: 땅굴내 이발소
 - 아래 땅굴내에서 작전회의를 하는 모습

포로송환 협상과 백마고지 전투

1. 포로송환, 휴전협상의 난제

- 포로 송환 문제
-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협약에 동의함에 따라 쉽게 타결될 것으로 예상.

- 문제 발생 → 포로송환 협상의 쟁점이 됨.

- ① 유엔군의 포로(북한군&중공군) 중 본국으로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
 - ② 자기나라의 정치제도로 반대 입장에서 귀국거부, 제3국 택하는 포로들
- 미국은 1:1 동수교환 제안, 포로의 명단을 먼저 교환하기로 함.
- 유엔군과 공산군 측에서 제시한 포로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발생
- 자유송환을 고수한다는 원칙 이외에는 포로송환 협상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특별한 진척이 없었음.

2. 거제도 포로수용소

-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포로 수 급격히 증가. 그러나 중공군 개입 이후 38선 이남으로 후퇴하면서 포로들은 부산으로 이송

- 미 제8군 사령부는 1950년 10월 거제도를 선정하고 수용소 건설.
 - 수용소장인 도트 준장이 포로들에게 납치됨. 후임 수용소장 콜슨 준장이 합의각서를 쓰고 도트 준장을 인도받음
- * <각서 내용>
- 1) 유엔군이 다수의 포로들을 살상하는 유혈사태가 있었음을 시인한다.
 - 2) 포로들의 송환문제는 판문점에서 논의된 결정에 따른다.

- 3) 포로들의 강제심사는 없을 것이다.
- 4) 포로의 대표단 조직을 승인한다. 등
 - 이 각서로 유엔군은 포로문제 협상에서 매우 불리하게 됨
 - 수용소에서 포로들은 중종기와 미군 비난하는 플랜카드 게시, 중화기로 무장 강화.
 - 신임 수용소장 보트너 준장이 포로들을 분리시키고 무기들 압수
 - 포로들의 폭동은 막을 내리고, 개인 의사가 확인된 포로들은 각 지역으로 분리 수용.

포로교환 문제(유엔군측 주장)

- 원칙: 자유송환, 1:1 교환
- 주장 이유
 - 포로 심문 결과: 많은 포로들이 북한 송환 거부
 - 충공군 국민당 계열 포로: 대만 송환 희망
 - ※ 근거: 제네바 협정 제 6조
“포로의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 별도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포로교환 문제(중공군측 주장)

- 원칙: 강제송환, 전체교환
- 주장 이유
 - 대다수 북한 송환 거부
 - 인적자원이 부족한 북한 큰 문제
 - 충공군 포로: 3/4 이상 충공 송환 거부
 - 충공의 국제적 체면 손상
 - ※ 근거: 제네바 협정 제 118조
“포로는 실제적인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해방되고 또 송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산군의 포로 강제 송환

- 휴전협상의제 중 포로교환협상 51. 말 시작
- 제네바 협정과 포로문제
 - 118조: 적대행위 종료 후 지체 없이 석방, 송환
 - 유엔군 측 - 자유송환, 공산군 측 - 강제송환
- 양측 포로명부 교환
 - 상호 예측과 명부교환 차이: 유엔군(6.5만 → 11559)
 - 공산군(17.6만 → 132474명)
- 강제송환이냐 자원송환이냐
 - 52.1월 중순까지 휴전회담, 포로문제로 교착
 - 포로교환방법이 휴전회담의 최대 쟁점

포로 현황

● 쌍방 제시 포로 숫자(51.12.18)

- UN군: 132474명
- 공산군: 11559명
 - * 공산 포로 중 송환 희망자
- 북한군: 111754명 중 약 65000명
- 중공군: 20720명 중 약 5000명

● 부상 포로 교환

- UN군: 6670명 (남 → 북)
- 공산군: 684명 (북 → 남)

● 공산측 제시 포로수(11559명)

- 한국군: 7142명
- UN군: 4417명 (미군 3198명)
 - * UN군 실종인원: 한국군 8.8만, 미군 1.2만 등 약 10만 추정
 - * 51. 3월 북한 발표: ○ 6.5만 포로 획득

● 실종자의 포로 비율

- 미군: 25% (1.15만 중 3198명)
- 한국군: 8% (8.8만 중 7142명)
- 영국군: 85%, 터키군 64% 등
 - * 공산측 주장: 도주, 폭격으로 사망, 전선 석방 등
→ 북한군 강제 편입, 학살, 병사, 소련 송환(기술자 과학자 등)

포로교환 문제 합의

- 53. 2. 22일 부상포로 교환 합의
- 53. 3. 5: 스탈린 사망
- 53. 4. 22일: 부상포로 교환
 - ※ 공산측: 684명, UN군측: 6,670명 송환
- 53. 6. 8: 포로송환 협정 서명(자유송환)
- 53. 6. 18: 이승만 대통령 반공포로 석방
 - ※ 석방된 반공포로: 약 27000명

포로송환 협상과 백마고지 전투

- 1952년 말 ~ 1953년 초에 미국과 소련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전쟁 초기 종결의 입장 표명
- 1953년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판문점을 통해 포로 교환 실시
-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원용덕 장군은 육군현병 경비대가 기습적으로 수용소를 개방하고 반공포로를 석방한다는 계획을 승인 받음
- 1953년 6월 18일. “각 경찰 관리들은 이들을 지도 보호하라”는 대통령의 담화와 함께 반공포로 2만 7000여명이 석방됨. 이 사건으로 미국을 당황스럽게 하였음
- 미국은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여 이승만대통령과 ‘[상호방위조약 체결](#)’, 장기간의 경제원조 제공, 한국군 20개 사단으로 증편, 휴전 후의 정치회담 등에 관해 합의(1953년 7월 12일에 이를 발표함) → 한·미간의 갈등 해결. 휴전은 조인만을 남겨두게 됨

3. 395고지 전투(백마고지 전투)

- 1952년 여름, 휴전회담의 난항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지전이 계속됨.
- 그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백마고지 전투’
- 1952년 10월 6일 ~ 15일 까지 한국군과 미군이 중공군과 싸워 승리를 거둔 전투.
- 10일간의 전투에서 395고지의 주인이 7번이나 바뀌었던 대 혈전!
- (*395고지: 강원도 철원군 묘장면 산명리의 야산으로, 철원 서북방 12Km 효정산 남쪽의 끝자락에 있는 고지로 공산군에 점령되면 철원평야가 노출되고 중부지역에 배치된 유엔군의 병참선인 3번 도로 사용 불가)

- ① 1951년 11월 3일, 1개 대대 규모의 중공군이 한국군을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어 9사단 29연대가 잘 막아내자 중공군은 5일 오후 9시에 재차 공격하여 29연대는 결국 백마고지를 중공군에게 빼앗김.
- ② 28연대의 2개 대대로 역습하여 다시 고지 탈환
- ③ 1952년 10월 6일 중공군은 [공격준비사격과 북쪽 전방에 있는 봉래호의 수문을 폭파](#)시켜서 한국군의 증원 및 군수지원을 차단하고 인해전술로 공격함.
- 이에 9사단은 3개 연대(28, 29, 30연대)를 교대 투입하면서 치열한 전투를 치름.
- ④ [한국군 제9사단을 비롯한 유엔군은 끝까지 투지를 불사르면서 395 고지를 장악함.](#)

52년도 군사작전

- 몇 개 특정지역에서 고지쟁탈전 반복
- ※ 단장의 능선, 수도고지, 백마고지, 저격능선, 351고지전투
- 한국군 전선만 집중 공격
- 휴전 반대 한국군 피해. 휴전 굴복 강요
- 미국 자극 자제

포로송환 협상과 백마고지 전투

4. 한•미 상호방위조약

-휴전회담의 시작부터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온 국민들은 휴전에 반대.
1953년 휴전협상 타결 분위기가 조성되자 국민들은 '휴전반대운동'전개.

-휴전회담의 타결 가능성에 확실시 되자, 정부는 휴전협정에 동의하되 조건을 달기로 함.
*〈조건〉

1)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2)한국군 증강을 위한 지원&소련의 침략행위에 대비하여 미 해군의 한국해역 봉쇄

3)공중방위를 보장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정치적 최후의 수단으로 '반공 포로 석방' 단행하여 미국으로부터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얻어냄.

이는 6.25전쟁의 최대성과라 할 수 있음.

-6.25전쟁 휴전 이후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됨.

13. 휴전협정 조인과 해, 공군 전투

순서

- 중공군의 최후 공세
- 휴전협정이 조인되다
- 해군의 전투
- 공군의 전투

53년도 군사작전

- 53.3 스탈린 사망으로 전선 소강상태
- 군사적 승리를 과시하기 위한 일전시도
 - ※ 중공군 최후공세(7.13-20) : 금성천 남안 고착

중공군의 최후 공세(금성지구전투)

중공군의 최후 공세

1. 상황개요

- 1953년 초, 휴전회담이 중단된 상황으로 소강상태중인 가운데 양 진영은 고지쟁탈전 후의 휴식과 정비
- 한편으로는 휴전회담의 최대 걸림돌인 포로문제를 타결하려했고, 보다 양호한 방어선의 확보 그리고 정치 심리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의 전쟁종결 등을 위한 군사전략 모색에 전력투구
- 유엔군은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억제
- 반면 공산군은 1953년 3월 까지 방어력의 강화와 공세역량을 쌓는데 집중
- 그리고 5월부터 하계공세를 하였으며 유엔군은 이에 대응
-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 중장은 만주폭격을 포함한 '확전 계획'을 건의하였고,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핵무기의 사용을 포함한 다각적 압박전략을 모색
- 공산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군 사령관은 한국군의 20개 사단 중편을 추진, 4월 22일 확정
- 공산군에 효과적인 대처방안이고 휴전 후 북한의 재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 1953년 5월 1일 한국군 제 3군단은 재 창설 되었으며 6월 18일 까지 제 26, 27 사단이 창설되면서 한국군은 3개 군단 18개 사단이 됨.

2. 전초전 : 최후 공세 제 1차공격

- 중공군은 1953년 1~2월에는 전력증강과 진지공사에 주력하다가 3월이 되자 서부전선의 유엔군 전초진지에 공격!
- 한강하구-판문점-철원 백마고지-금성-교암산-동해안의 감호를 연한선에 따라 중부전선의 화천북방전선이 금성쪽으로 불거져 금성돌출부라 함
- 중공군 제 60군 제 180 사단이 한국군의 제 5 사단 전초진지 공격을 시작으로 5월 13일부터 금성돌출부 정면에 대해 공격
- 한국군 제 2군단과 제 9 사단 및 수도사단은 대부분의 공격을 격퇴하였으나, 제 8 사단은 전초는 피탈

3. 중공군 6월 공세 : 최후 공세 제2차 공격

1953년 6월 8일 포로송환 협상이 타결되면서 다시 휴전회담의 물꼬가 트이고 공산군은 최후의 공세를 준비하였으며 배치된 공산군의 수는 약 180만명!

(*공산군이 전력을 강화하여 대규모 공세를 하려 한 이유)

1. 휴전이 발효되기 전에 점령지역을 최대한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쟁의 승자는 공산군임을 대내 외에 과시

2. 한국내에서 들끓고 있는 휴전반대 운동과 한국 정부의 북진주장을 위축시키기 위해 한국군에게 심각한 타격

-공산군은 한국군 제 2군단이 담당하는 강원도 금성지역을 선정

이유 : 지형이 험준하여 인적, 물적지원이 어렵고, 북쪽으로 돌출되어 점령하는데 유리

-중공군은 6월 10일 밤에 51년 5월 공세 이후 최대 규모인 1개 군을 투입하여 한국군 제 2군단을 공격

-중공군과 비교하여 병력이 열세인 한국군은 북한강 남안까지 철수!

-유엔군 전폭기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6월 18일 황급히 구축한 방어선에서 전선을 안정시키는데 성공!

4. 중공군 7월 공세 : 최후 공세 제 3차 공격

1)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으로 6월 18일 약 27,000여명에 달하는 반공포로가 일방적으로 석방!

이에 휴전협정이 중단되고 공산군은 마지막 최종공세를 준비

<재187공수연대의 공수낙하 모습>

2) 중공군은 6월 공세에 얻은 효과가 반공포로 석방으로 상쇄됐다고 판단하여 “실추된 그들의 이미지를 군사작전을 통해 갚겠다.”는 의도로 화천저수지를 목표로 최종공세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은 일본에서 정비중인 제 24사단과 제187공수연대를 한국으로 불러와 재배치

<금성전투에서 포로가 된 한국군>

3) 중공군은 7월 13일 밤에 공격하였으며 무려 5개군의 병력을 투입

-금성의 좌/우측에서 양익포위전술을 구사하며 한국군 제 6, 8사단 후방을 차단한 후 섬멸기도

-미 제 8군 사령관 테일러 장군은 방어선을 금성천 남단으로 조정한 후 철수 할 것을 명령!

<돌격하는 중공군 전차와 보병>

4) 한국군 제 2군단과 미 제 9군단은 적근산과 백암산을 연하는 선으로 후퇴하였다가 재빨리 반격하여 금성천과 북한강을 연하는 선가지 탈환, 계속하여 금성천 북안으로 반격을 시도하였으나 미 제 8군사령부의 공격중지 명령으로 실행하지 못함

<목숨을 구걸하는 중공군>, <고지를 따라 이동하는 미군>

5) 결국 한국군 제 2군단은 다시 반격으로 잃었던 금성지역의 절반정도를 회복하는데 그치고 작전은 종료

-현 접촉선은 휴전으로 인하여 군사분계선으로 확정

-중공군은 무려6만명 정도의 사상자를 내는 막대한 피해

휴전협정이 조인된다.

1.1953년 7월27일 오후 10시

- ◆1953년 7월 중순-이승만 대통령과 로버스트과 협의, 한국정부도 휴전인정
- ◆1953년 7월27일(휴전협정당일) 22시를 기해 발효시키기로 합의

◆1953년 7월27일 오후10시-6.25전쟁이 휴전으로 일단락됨
(월터 로버트슨 :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미 대통령 특사))

휴전 협정 조인

○이승만 대통령과 휴전협정대표 회담 미 참석 및 서명회피

-휴전이후 : 유엔(미국)이 책임지도록 하기 위함

○휴전협정 조인

-53.7.27. 10시 판문점 유엔군측 해리슨 미 육군 중장, 공산군측 남일 북한군 대장, 전문 서명

-유엔군 측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각지휘관 참전대표 임석)

오후 1시 정전협정 서명

공산군 측 김일성 오후10시 서명

중공군의 쟁덕회 7.28. 9시30분 서명

휴전협정 내용

■전문과 5개조 63개항 구성

■주요내용

- 평화적 해결될때까지 무력충돌 정지
-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설정
- 국경선 밖에서 군사력 도입금지, 단 1: 1교체 허용
-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회 설립
- 휴전협정 발효후 60일 이내 송환희망포로 송환
- 휴전협정 발효후 3개월 이내 정치회담 개최 건의

2.총성은 end, 전쟁은 ing

휴전협정은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말그대로 전쟁을 잠시 쉬는 것뿐 종결된 것이 아님
이는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평화조약이나 강화조약과는 다른 것

실제로 북한은 현재까지도 계속적인 도발을 감행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됨

해군과 공군의 전투

한국과 북한의 해군력

대한민국

-병력-6,956명

- 경비함정-28척
- 보조함정-43척
- 화력-3인치 포

- 북한
- 병력-15,570명
- 경비함정-30척
- 보조함정-80척
- 화력-57mm,40mm포

북한군의 해상 침투와 초기 해전

1950년 6월 25일, 전면전이 시작되기 전에 8사단 후방지역인 옥계 삼척 임원 등지에 게릴라와 육전대 병력을 상륙
→제8사단을 전후방으로 공격하면서 태백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게릴라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
→북호경비부는 재출동하여 북한군 상륙정 1척을 격파
*제한적이지만 동해안과 남해안일대의 북한군 상륙기도를 차단하는 전과

옥계해전

1950년 6월 25일 오전3시30분 북한군 제766부대, 삼척에 주둔하던 제8사단 21연대의 강등지원을 차단하는 임무를 받음
○약1800명의 병력이 1000톤급의 무장수송선과 어뢰정의 엄호를 받으며 금진 및 옥계 방면에 상륙
→일요일 오전6시, 긴급출동 명령을 받은 509정은 북호항을 출항하여 북상
→해상조건이 좋지 않았으나 509정과 비교하여 반 이상 크고 속도가 빠른 적선을 37mm포로 써 정확히 명중
○적 PGM1척 격퇴, 상륙정 1척 격파, 발동선 1척 노획하는 전과

대한해협해전

701(백두산)함은 6월25일 오전 진해통제부사령관으로부터 동해로의 긴급출동 명령을 받음
→512정과 함께 동해로 향하던 중 오후 8시 12분경, 미식별 선박 발결
→26일, 오전1시 38분경 적선을 격침
○1,000톤급 무장수송선, 57mm포 1문, 중-경 기관총 2~4정
○병력-해군, 지상군 포함 600여명

701함(백두산)함

-해군장병들과 국민들의 성금으로 미국에서 구매한 함정, 한국 해군 최초의 전투함이자 유일한 전투함이다.
(사진)당시 대한해협해전에서 활약한 백두산함과 60여년만에 재현한 대한해협해전 모습

대한해협해전 승리의 의미

- 미군이 참전하기 이전 우리 해군이 단독으로 무장병력을 태운 적선을 격침
- 일본, 미국 등지에서 보급되는 군수물자와 증원병력을 부산으로 이송하는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
- 대한해협해전의 결과로 북한은 계획된 해상작전을 변경해야만 함
- 남해 상륙을 기도하는 적의 게릴라부대를 격멸하여 후방교란을 미연에 방지

통영상륙작전

- 1950년8월16일 - 북한군 650여명(예비대300명 포함)은 통영에 투입
- 1950년8월17일 - 김성은 부대, 장형리 해안 단독 기습상륙작전 실시
 - 한국군 최초 상륙작전
- 1950년8월19일 - 통영지역 북한군 및 선박 퇴출 성공
- 통영 재탈환 위해 북한군 재차 공격 개시
- 매일봉고지를 점령한 해병은 통영의 입구인 원문고개에서 북한군 격퇴
- 낙동강 교두보선의 서측방 위협 제거 : “귀신잡는 해병”신화 창○조

*해병대15명 전사 부상47명, 북한군 469명 사살 83명 생포
후퇴와 방어의 국면을 진군과 공격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됨

덕적도 및 영흥도 탈환작전

덕적도

- 인천 접근수로 입구에 위치,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우선 확보해야할 도서
 - 적의 해상활동을 차단하고, 적 함정의 동정을 감시하는 기점으로 사용
 - 이 적전 부대 상륙반 1개 중대 편성111명
 - 덕적도 남동쪽 해안의 진리에 상륙 점령
 - 북한군 진지 포기, 북서부 국수봉 도주
 - 상륙부대 북한의 발동선 1척 나포
- ※이 작전부대 : 이희정 중령(기함 함장)의 성을 따서 명명

영흥도

- 인천의 교량, 인천상륙작전의 중요 거점. 비교적 평탄한 해안선일대. 동부와 남서부 어성리 북쪽에 각각 해발 100m고지 위치
- 덕적도 점령후 영흥도 북쪽에 3개소대 투입
- 내리1구 점령 후 내리 3구 고지 투입
- 적 추격, 어성리 접근
- 진 적 소탕 후 영흥도 점령

유엔 해군 작전

UN의 해군력

- *제96기동부대
- 대잠수함 활동과 일본 내 미 해군기지의 방호임무를 수행
- 경순양함, 구축함 4척

*제90기동부대

- 포항상륙작전, 원산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흥남철수작전을 수행
- 지휘함1척, 공격인원수송함 1척, 공격화물수송함1척, LST 1척, 함대 예인함 1척

*제7함대

- 미 태형양 함대사령부의 전전통제
- 27,100톤급 항공모함1척, 77기동부대 및 몇 개의 기동전대

UN의 해군력(미국)

- 참전일 1950년6월27일
- 극동해군
- 미제7함대
- 항공모함16척
- 적 보급 및 병참선 차단작전전함 10척, 순양항
- 항포를 이용하여 지상군 부대에 대한 화력지원을 제공
- 해상수송근무부대 : 화물 5.211만 1.209톤, 유류2.182만톤, 인원 491만8.919명 수송

UN의 해군력(콜롬비아)

- 참전일 1951년5월8일
- 프리깃함 1척
- 한국의 동해 해안에서 유엔해군의 일원으로 보급품 수송, 선단의 호위임무, 해안순찰, 함포사격, 소해정 엄호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

UN의 해군력

- 캐나다 -참전일 1950년7월30일 -구축함 3척
- 네덜란드 -참전일 1950년 7월 16일 -구축함 1척
- 뉴질랜드 -참전일 1950년 7월 30일 -프리깃함 1척

UN의 해군력

- 프랑스 : 참전일 1950년7월29일/ 구축함 1척
- 태국 : 참전일 1950년11월 7일/프리깃함 7척, 수송선 1척
- 오스트레일리아 : 팜전일 1950년 7월1일/ 항공모함 1척, 구축함 2척, 프리깃함 1척

해양봉쇄작전과 함포지원_동해안 지역에서의 전개

■동해의 특징

- 상대적으로 작은 조수간만의 차
 - 단조로운 해안선
 - 깊은 수심
 - 모래사장의 해안가
- 동해의 중요성
- 미국과 일본의 병참 루트로서 중요하다.

6월29일

- 미국 경순양함 JUNO호 동해안의 함포사격
- 해양봉쇄작전 실행

7월2일

- 북한 어뢰정 3척, 함선 2척 격침
- 동해의 제해권 장악

7월4일

- 삼척 주문진 연안 포격

7월 5~6일

- 주문진 유류 저장창고와 선박 공격

8월 8일

- 영국 경순양함 Jamaica호 피격

8월 7일

- 함경남도 단천 시설물 파괴

8월 14일~15일

- 단천, 고성 야간 기습 상륙 실시

8월 하순○

- 청진, 성진, 단천 등 포격

8월말 ~ 9월말

- 미 제 25사단의 지상학력 통제 반에 협조

화력지원 : 영해와 영덕 진출한 북한군 타격/북한군 제5사단 포격

상륙지원 : 미 제1기 병사단의 한반도 투입

후퇴지원 : 한국군 제 3사단의 해상철수 작전 지원

해양봉쇄작전과 함포지원_서해안 지역에서의 전개

- 경 항공모함이 합류 후 서해안에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
- 병력과 보급 수송을 차단하고자 하는 한국 해군의 작전을 지원
- 지상군의 화력지원 등 주어진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해상수송, 그리고 포항상륙작전

수송임무가 진행되기에 알맞은 곳으로 낙점된 곳은 바로 부산

-55척의 함선으로 15,000명의 병력과 1,700여대 차량을 수송

-그러나 7월 초가 되자 부산은 포화상태가 되어 원활한 장비 수송이 불가능
부산다음 상륙지역으로 선정된 포항

-미 24사단 병력의 교대를 위해 빠른 시일에 상륙에 필요한 것들을 보수

포항에서의 상륙작전 성공(7월 18,19일)

-미 제 1기병사단 상륙

*이는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될 때 까지의 시간을 끌어다 주었다.

항공모함부대의 공습과 항공지원

7월 3일~29일

- 오전 6시에 발진하여 평양 상공에서 북한군 수송기 및 YAK전투기를 폭격
- 평양의 철도와 주요 교량 파괴, 회차와 기관차를 맹공격
- 공군력으로 북한군의 주요 요충지를 파괴하여 제공권 장악

8월 공세(8월17일)

- 8월공세로 인해 낙동강 방어선 상공에서 적 항공지원 차단 임무수행
- 교훈
- 제공권확보와 지상군 작전을 효율적으로 진행

한국과 북한의 공군력

한국

<<병력 1,897명에 경항공기 22대 보유>>

- 1946년 8월 10일 -‘한국항공건설협회’를 창설
- 1948년9월4일- 미군으로부터 L-4연락기 10대를 인수하여 비행 훈련 시작
- 1948년 9월13일 -항공기지부대를 ‘항공사령부’로 개칭
 - (당시 항공사령부가 가지고 있던 L-4는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미국으로부터 L-5항공기 10대를 공급받음)
- 1949년 10월1일-공군 창설
- 1950년3월-AT-6훈련기 10대를 캐나다로부터 구입

북한

<<병력2,200명, 200여대의 항공기(IL전폭기 75대, YAK-9전투기 100대)보유>>

- 1945년10월-‘신의주 항공대’를 창설
- 1947년 9월 -인민군총사령부를 통한 북한군의 모습을 드러내자 평양학원 소속 항공중대는 항공과와 비행대대로 증편
- 1948년 2월 -인민군이 창설되면서 예하부대인 제25비행연대로 확대편성

북한공군의 공습과 한국 공군의 초기 작전

6월25일 오전10시경 북한군의 YAK전투기 2대 서울 일대 경찰

- 오후 경 4대의 YAK기가 용산역, 서울 공착장, 운전사무소와 통신소 등 사격실시 항공기를 분산, 대피 | 키고 여의도에 작전지휘소를 설치
 - 낮은 높이로 비행하여 조정시 뒤에 앉은 관측사가 직접 손으로 폭탄을 투여할 정도로 열악
 - 뾰족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아 선택한 최대한의 대처
- 미국의 해군력, 공군력 투입 결정
- 다시 공격을 온 북한의 YAK전투기가 또다시 여의도와 김포비행장을 공격, 미 공군의 반격으로 전투기 3개 격추

맥아더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중에 “북한의 비행장을 즉시 공격”명령
-미군의 항공 작전이 북한의 영토로 확대

정찰 및 근접항공지원작전

한국 공군, 미군에 지원받은 F-51전투기로 지상군 지원하는 작전
-7월3일~26일 총 91회 출격, 전차7대, 차량 17대, 주요시설, 300여명의 북한군 살상
-소송사 이사옹 대령 적의 대공 포화에 산화
공군F-51비행부대
-8월15~9월11일까지 93번 출격
-북한군 차량 115대, 교량 20개소 파괴
한국 공군 정찰 비행대, AT-7비행부대
-통영상륙작전 비롯하여 정찰 및 전투기 유도
-낙동강 방어선 지역의 정찰 임무 수행

한국 공군의 3대 작전

■승호리철교 차단작전

1952년1월 미 제5공군이 북한의 주요 보급로를 하나하나 차단하던 상황
수차례공격으로 남게 된 승호리 철교
-이미 주요 교량이라 파괴하였지만 다른 보급로를 차단하는 동안 근처 지역에 다시 재건
작전권을 한국 공군에게 인수

윤응렬 대위와 옥만호 대위가 각각 3기의 F-51항공기를 이끌고 출격
4,000피트 고도 진입후 1,500피트까지 강하하여 krhdrur하는 초 저고도 공격전술을 구사
공격전술을 구사하면서 북한군의 거미줄과 같은 대공 포화망을 뚫고 폭격을 시도했다.

<당시 승호리전투를 위해 출격한 F-51>

상당히 위험이 뒤따르는 공격방법이였지만 반드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한 우리 공군 조종사들은 폭탄12발, 로켓탄20발, 기총4,700여발을 사용하여 마침내 승호리철교를 폭파하는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평양대폭격작전

-1952년7월, 전전선에 걸쳐 공산측과 UN측의 병력은38선 근처에서 들쑥날쑥한 전선을 형성하고 대치
-휴전회담이 시작되었으나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계속 군수물자들을 전선으로 수송
-이런 징후를 분석한 UN군 사령부는 공산측이 휴전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결론

- ◆대대적인 항공 견제로 북한의 수풍댐 발전소 등 13개의 발전소 파괴
- ◆하지만 휴전회담에서 공산측의 거만하고 터무니 없는 조건 제시 등 좋지 않은 태도
- ◆북한의 수도 평양에 대해서 대대적인 폭격작전 실시
- 평양에 계속적인 폭격에도 군사시설 건체, 여전히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계속적인 폭격

- ◆ 영국, 남아공 등 UN공군부대와 한국 공군에 지원 요청
 - 강호륜 소령을 지휘관으로 하는 12기의 머스탱부대 출동
- ◆ 수많은 UN군의 폭격기로 이미 평양은 불바다
 - 검은 연기로 인해서 목표가 어디인지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많은 수의 미군기들이 평양상공에서 대강 폭탄을 떠르어뜨리고 귀환코스로 돌아가는 실정
- ◆ 그러나 한국공군은 위험하더라도 반드시 목표지점에 폭탄을 투하하는 작전 고수
 - ◆ 경확히 투하하고 1기의 손실없이 무사 귀환
 - ↓
 - 한국공군은 부여된 목표를 모두 정확하게 파괴하여 한국공군 조종사들이 미공군 조종사들에 비해서도 절대 떠르어지지 않는 지상공격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

■ 351고지 전투

- 다급한 상황에 몰린 동부전선 월비산 351고지의 한국군 병력을 지원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
- ◆ 25기의 기동기 전체가 쉴새없이 교대로 전선상공에 투입
 - ◆ 초저공으로 전투지역을 비행하면서 아군과 적을 정확하게 식별한 후 공격목표를 지정해 아군기들을 유도
 - ◆ 공격기로 투입한 F-51D의 조종사들도 지정된 공격목표에 정확하게 로켓탄과 폭탄 투하하여 적 섬멸

351고지

금상산 남쪽 바로 앞에 위치한 월비산의 고지를 말하며, 백마고지, 저격능선, 피능선 등과 함께 한국전쟁 중 가장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곳이다. 이 고지에 집착한 이유는 351고지를 점령하는 쪽이 금강산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3년 7월 휴전이 임박했을 무렵 북한군의 전면적인 공세가 다시 시작되어 북한군에게 점령당하여 현재는 북한이 대미의 상징으로 칭하고 있다.

UN의 공군력

- ◆ 미 제5, 13, 20공군
- 미 국동 공군 예하 소속
- 제5공군 사령부-나고야
- 제13공군 사령부- 필리핀 북부 루손 섬에 위치한 클라크 기지
- 제 20공군 사령부-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 항공기 총 1,172대, 북한군의 200여 대에 비해 5배
- ◆ 오스트레일리아 제77비행대대
- 이와쿠니 사령부 위치, 미 제5공군의 적전 통제

공중수송과 초기작전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미국인들을 해상으로 철수시키기 위해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해군 선박을 한국해역에서 벗어날 때까지 보호하는 임무

6월26일 : 트루먼 대통령 38도선 이남의 공격 작전 수행 허가

6월 27일 :

- 아더 남한지역 제공권 장악하라는 명령 하달
 - 김포, 수원, 부산 등지에 있는 주한 미국인 938명을 철수 시키는 과정에서 미 공군은 김포에서 북한군 YAK전투기 3대, IL-10전투기 4대와 공중전을 벌여 이를 격추시킴
- 6월 28일 : 사진 및 육안 정찰을 통한 목표물 공격을 실시하여 38도선 이남지역의 목표물에 대해 공격을 강행

공중수송과 초기작전

6월 29일 :

폭파되지 않은 한강 철교를 폭격하여 끊어버림

이와중에 UN C-54 전투기 1대 파괴

→제공권 확보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의 작전 수행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에 맥아더는 이를 수락하고 북한 지역에 있는 비행장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 이로서 작전 범위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

제공권 확보 작전

북한공군은 북한군의 지상 작적은 지원하면서 미 공군기의 연료 소모와 작전시간의 한계를 계산하여 그 타이밍에 기습 공격을 실시하는 전술을 사용

→북한의 이런 전략에 대응하여 미 극동 공군은 김포기지를 공격하고 김포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

→한국 공군은 F-51전투기 36쏘티를 참가시켜 평양 군사목표 2개소를 완전 파괴함으로써 적인 전쟁능력과 전쟁의지 말살

→유엔공군이 한반도의 제공권을 확보

근접항공지원 및 후방 차단작전

■더글라스 맥아더

공군의 정확한 공격목표 선택 중요성 강조, '목표선정위원회'설치

-항속거리를 줄이고 체공시간을 늘리는 방법 강구

-일본 내 항공기지 한반도 근처로 이동

-국내 항공기지 대구, 포항, 수영으로 확장

-북한군의 8월 공세로 모든 항공기 근접 지원

○낙동강 방어선 전방에 30여분동안 B-29퓨노격기 98대가 약 3,200여 발의 융단폭격

■미 공군의 후방 차단작전

7월 7일~10일 : 평택지역에서 차량 314대와 전차 82대 파괴, 7문의 자주포 파괴

7월 13일, 16일 : 원산조차장/서울 조차장 파괴

8월 7일, 8일 : 평양조차장/ 함흥 조차장 폭격

결과 : 140개소 교량, 47개소 철도망, 93개 도로망, 1,400여 대의 차량, 2,900여대의 화차, 450여대 기차 파괴 및 파손시킴

14. 전쟁결과 및 교훈

전쟁의 성격과 영향

- 남한 공산화를 위한 불법 기습 ‘남침전쟁’
- 북한의 치밀한 사전준비에 의한 ‘계획된 전쟁’
-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 시킨 ‘민족분열 전쟁’
- 공산진영의 세계 적화를 저지한 UN의 ‘자유수호 전쟁’
- UN연합군이 참전한 ‘최초의 전쟁’
-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로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국제전 : 자유진영학자

소련 스탈린의 ‘전쟁결정권’

남,북한 전쟁수행능력 전무(무기생산, 전략 작전계획수립, 전투수행 능력 등)

-김일성 - 스탈린 협의문서(1950. 3. 30)

- 자유진영 : 미국외 20개국
- 공산진영 : 소련의 2개국
- 중립국: 스위스의 3개국 등

내전 : 수정주의자 (북침설/ 남침유도)

- 빨치산 활동의 연장(제주4.3/ 여순사건 등)
- “국제전 성격이 가미된 내전”으로 인정

통일전쟁(민족해방전쟁) : 북한측

- ‘내전’ 발화/ 미국 참전으로 ‘조국해방전쟁’ 北
- 한국 내 좌익세력(예 : 맥아더 동상철거/ 미군철수 등)

김일성의 침략전쟁/ 내전 민족해방전쟁은 허구에 불과하다.

내전(內戰)론의 문제점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전쟁 책임 남, 북이 50%

-공산화를 막은 UN의 역할 부정

-“대한민국은 자유선거를 통해 탄생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1948. 8. 15

내전을 미국개입으로 확전/ 역사 왜곡

UN참전국 흘린 피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이라는 대한민국 핵심가치를 보존

6.25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국제 전: 20개국에 달하는 교전 국가를 포함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하였기 때문

현실 전: 직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하고 구체화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쟁

이념 전: 동-서 이념분쟁의 이념 전을 동시에 지닌 전쟁

전면 전: 전장 규모면에서 보면 분명히 국지전이지만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참여한 점

총력 전: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전장이 한반도와 그 근해로 국한, 핵 시대에 치러진 제한 전쟁이지만 남북한 단독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미군과 중공군의 힘까지 동원되었으므로 전쟁 당사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재래식 전쟁의 전형: 전쟁사에 있어서 현대에 치러졌으므로 현대전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핵폭탄을 사용하지 않고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점이나 전력, 전술도 재래식으로 구성된 점

-전쟁 종결 방식을 포함하여 현대에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재래식 전술 전력으로 싸우다가 **아무런 정치적 목적을 거두지 못한 채 300만이 넘는 억울한 한민족의 원한만 남긴 전쟁**

6.25전쟁이 미친 영향

정치 경제 사회

-우익/ 반공적인 국가질서 강화 - 반공 : 국시(國是)

-친미적 외교노선 추구

-국제연합에 대한 신뢰도 증대(유엔의 날 제정 : 50-74)

-미국의 경제원조하 자주 성장 가능성 상실(경공업 수준)

군사

-군부의 급격한 성장 및 영향력 증대

-미군 군사교리 대폭 수용

-전력증강 및 군비증강 필요성 급부상

전략

- 재래식 전쟁의 대비 필요성 인식
-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 재평가
- 해 . 공군 균형발전 및 ○ 작전능력 향상(연합/합동작전 향상)

전술

- 특수전 부대에 대비한 대비정규전 수행능력 향상
- 산악작전 및 야간작전 능력 향상

무기체계

- 대전차화기 발달 헬기성능 개량, 야시장비 적극 도입
- 자주포 및 전차 도입 및 개발, 무선통신장비 개발

- 약 3년 1개월간의 전쟁이 휴전으로 귀결됨
- 남한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국내정치적- 우익적이고 반공적인 국가질서를 강화시킴

- :민주사회주의의 온건한 이념조차 공산주의와 동일시되고 중간노선과 협상노선을 추구한 지도자들이 대부분 월북하거나 납북됐고 죽음을 당함
- 우익적, 반공적 정치질서와 친미 성향이 두드러짐

국제관계- 미국이 대한민국의 구원자이며 은인이라는 믿음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됨

- :점차 친미적 외교노선을 추구, 국제연합에 대한 신뢰 강화
- 국제연합을 대상으로 한 외교를 중시하게 만듦

경제분야- 미국과 유엔의 경제 원조에 힘입어 전후 경제를 복구시켜 나감

- :대한민국의 경제적 요구나 필요와는 관계없이 경제원조가 이루어짐
- 소비재 경공업 우선의 공업화가 추진됨에 따라 공업의 대외 의존적 성장과 농업의 침체 현상 발생

군사적인 영향 - 전쟁 발발 시 6만 5천명 규모의 육군이 휴전직후 65만 5천명 규모로 확대됨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미군의 지원이 체계화되며, 전력증강 및 군비증강의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재래식 전쟁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해군과 공군을 균형 발전시키고 전술적으로 특수전 부대에 대비한 대비정규전 수행능력과 산악 작전 및 야간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며 무기체계도 자주포와 전차 등 획기적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됨

정신적인 영향 - 반공주의적인 정신적 분위기를 높임

:반공은 '국시(國是)'의 지위를 차지하여 때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하기도 하고 권위주의나 독재주의가 합리화 되는 경향도 있었음.

국시-국민의 지지도가 높은 국가 이념이나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

→ 반공주의가 부분적으로 부작용을 빚은 점은 비판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북한의 남침도발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국가안보 유지에 공헌한 사실을 인정 돼야 함.

사회적인 영향- 민족의 대이동, 도시로의 인구집중, 사망률 증가, 출산율 저하, 심각한 실업률 등이 발생했으며 수많은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및 상이군경, 혼혈아 문제를 낳기도 함

→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학문과 기술 및 예술 등에서 기여한 바가 큼

6.25 전쟁의 문학적 영향

문학적인 영향 - 6.25 전쟁에 대한 문학이 일반화되고 대중화됨

설우휘 - 불꽃, 윤정모- 전쟁과소년, 윤홍길 - 장마

6.25 전쟁은 각 분야에 걸쳐 전 방위적으로 영향이 심대하였으며,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과 앞으로도 계속하여 살아 숨 쉴 것이다.

미국의 전쟁목적 변화과정

UN참전국 현황(16개국)

| 국명 | 참전연인원 | 국명 | 참전연인원 |
|---------|-----------|----------|-------|
| 미국 | 1.789.000 | 콜롬비아 | 5.100 |
| 영국 | 56.000 | 그리스 | 4.992 |
| 캐나다 | 25.687 | 뉴질랜드 | 3.794 |
| 터키 | 14.936 | 에티오피아 | 3.518 |
| 오스트레일리아 | 8.407 | 벨기에 | 3.498 |
| 필리핀 | 7.420 | 프랑스 | 3.421 |
| 태국 | 6.326 | 남아프리카공화국 | 826 |
| 네덜란드 | 5.322 | 룩셈부르크 | 83 |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UN지원국 현황(5개국)

| 국명 | 참전연인원 | 지원부대 및 시설 |
|------|-------|-----------|
| 스웨덴 | 314 | 적십자병원 |
| 인도 | 697 | 제60야전병원 |
| 덴마크 | 730 | 병원선 |
| 노르웨이 | 728 | 이동외과병원 |
| 이탈리아 | 200 | 제68적십자병원 |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이 발발하자 전 세계적으로 총 63개국이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지원

-16개 국가에서는 전투부대를, 5개 국가에서는 의료지원 및 시설, 39개국의 물자지원과 3개국의 물자지원 의사표명

미국의 전쟁목적 변화과정 분석

1단계(1950. 6. 25 ~ 9. 15)

전쟁목적

-전쟁이전 상태의 회복/ 남한영토 회복

이유

-소련의 팽창을 한반도에서 저지

-1950. 6. 26일 제 1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북한은 불법남침을 즉각 중단하고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

2단계(1950. 9. 15 ~ 10. 25)

전쟁목적: 한반도 통일

-전쟁이전 상태의 회복 → 한반도 통일

이유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으로 북한군 거의 궤멸

-38도선 이북지역 힘의 공백지대

→미국은 현재 투입된 군사력 : 한반도 통일 자신감

-38도선 경지하고 북진을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재침 가능성 우려

-10. 7일 유엔에서 “통일한국 결의” 안 채택

-국제사회의 지지와 명분 획득, 정치적 융통성 확보

3단계(1950. 10. 25 ~ 1951. 7)

전쟁목적 : 저지 및 철수

-한반도 통일 → 한국을 포기 일본 철수

이유

-중공군의 1,2,3차 공세로 서울 피탈

-중공군의 진출을 저지할 수 있는 자신감 상실

-중공군의 진출을 최대한 저지하다가 불가능 할 경우

→전투력 보존차원에서 일본으로 철수

-미국: 유럽과 일본방위를 위해 전투력 보존 필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창설 1년으로 군사력 건설 미흡

4단계(1951. 7 ~ 1953. 7. 27)

전쟁목적: 현 상태에서 조기 휴전

-저지 및 철수 - 현 상태에서 조기 휴전

이유

- 유엔군의 3차례에 걸친 반격작전
- 중공군에 대한 자신감 회복
- 한국 포기하고 일본으로 철수한다는 불안감 해소
- 한반도 통일 위한 군사작전 확대 제한
- 많은 희생과 시간, 제 3차 세계대전 확산 위험
- 미국내 확산되고 있던 반전여론/대통령 선거

결론

- 전쟁초기 “38도선 회복”
- 북진정책의 결정으로 “한반도 통일”
- 중공군 개입으로 “한반도에서 철수”
- 소련의 휴전회담 제의 “조기휴전”
- 미국의 전쟁목적 : 소련, 중공과 전면경쟁 회피 군사적 상황에 따라 변화

6.25전쟁의 피해

남북한 인구 3,000만 명 중 60%가 넘는 1,900만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 1.남.북한 군인140만 여명 사망
- 2.민간인 250만명 사망
- 3.중공군.UN군 112만명 사망
- 4.전쟁미망인30만명, 전쟁고아 10만명
- 5.이산가족1,000만명

4.5. 이들 중 일부는 아직도 살아있다.

남북한 인명피해?

군인-한국군 62만1천여명/북한군80만1천여명

민간인-한국99여만명/북한 약150여만명 →500여만명

기타-유엔군15만4천여명/중공군 97만2천여명

*이재민: 370만명, 전쟁미망인: 30만명, 전쟁고아 : 10만명, 이산가족; 1천만명

*남북한 인구 3,000만명중 60%가 넘는 1,900여 만명 피해

국군 및 UN군 피해 : 77만여명
 (사망 187,599, 부상 555,022명, 실종 및 포로 41,769명)
 미군피해: 13만여명
 (사망36,940명, 부상 92,134명, 실종 및 포로 8,176명)

6.25당시 북한군 인명피해

| 구분 | 사망/부상 | 비전투 손실 | 실종/포로 | 계 |
|-----|---------|---------|---------|---------|
| 북한군 | 512,000 | 711,000 | 102,000 | 791,000 |

(출처 :한국전쟁 피해 동계집 국방군사연구소, 1996)

6.25당시 중공군 인명피해

| 구분 | 전투 손실 | | | 비전투 손실 | | 계 |
|-----|---------|---------|--------|--------|---------|---------|
| | 사망 | 부상 | 실종/포로 | 사망 | 부상 | |
| 중공군 | 135,600 | 208,400 | 25,600 | 13,000 | 590,000 | 972,600 |

(미국 추정자료 : 123만명)

(출처 : 한국전쟁 피해 동계집 국방군사연구소, 1996)

6.25당시 민간인 인명피해

| 국명 | 사망 | 학살 | 부상 | 납치 | 행방불명 |
|----|---------|-------------------------|---------|--------|---------|
| 남한 | 244,663 | 128,936 | 229,625 | 84,532 | 303,212 |
| 북한 | 약200만명 | 추정(사망, 부상 등 모든 피해자를 포함) | | | |

(출처 : 한국전쟁 피해 동계집 국방군사연구소, 1996)

-이처럼 전쟁은 군인, 민간이 등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감

-전쟁은 총체적 파멸로 치닫게 하는 아주 무서운 것

전쟁미망인30만, 정쟁고아 10만, 이산가족 1천만 발생

이산가족 발생(약1천만명)

▶ 인구이동

-남한→북한: 약 20만(대부분 납치/의용군)

-북한→남한: 약 300만명

▶ 사회학적 측면

-남북한 공히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5년간 경험(1945~1950년)

-북한군 남한3개월/UN군 북한 3개월 통치

+왜 북한주민이 15배 비율로 남한으로 왔을까?

국가 기반시설 45% 폐허

“국토의 1/3 초토화 및 각종 건물 파괴”

공장시설 45%, 가옥60%, 농업27%, 공업43%, 광업50%
공공건물542동, 학교건물33,015개, 의료기관940개, 일반주택62만여 채, 종교.사회단체건물
1,191만평

공공시설84%, 가옥60%, 광업시설 50%파괴

물질적 피해

민간가옥, 학교, 의료기관, 행정기관

→사회전반의 기반시설 파괴

피해액: 22억 8,105만 4,217달러(2조 6,209억3,129만원)

세계기자들이 즐언한 6.25전쟁

▶미국이 종군기자 '막스 데스퍼'

“난 많은 전쟁을 참여했고 보지 말아야 할 모습들을 보았다. 내가 비록 전쟁에 강해져 있었지만 그때 그 광경은 지금껏 내가 보아온 가장 비참한 장면이었다.”

▶영국의 종군기자 '데니스 위너'

“한국전쟁(6.25)은 인류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동족상진의 전쟁이었다!”

사진 : 북한 동포의 목숨 건 남하 행렬 (19581년 풀리처상 수상 사진 '대동강 철교 파괴')

6.25전쟁의 진실 남침? 북침?

북한이 남침이라는 확실한 증거

1937년 - 일본군의 중국군 기습 (중.일 전쟁)

1939년 - 독일군의 네덜란드군 기습(2차대전)

1941년 - 일본군의 진주만 (미군) 기습(태평양전쟁)

1950년 - 북한군의 대한민국 기습(6.25 전쟁“)

-공통적으로 “먼저 공격 받았기 때문에 역습” 주장/ 종전후 진실 시인(단, 북한만 끝까지 오리발)

남침설: 한국, 미군, UN 한국 위원단, 러시아 측 주장

-쏘, 중 사주에 의한 김일성의 불법침공

-선제공격 국가가 3일만에 수도 함락된 전쟁사례 전무

-1994. 6. 김영삼 대통령 러시아 방문시 구소련 '한국전쟁 극비문서' 전달

→러시아 대통령 '국립문서보존소' 극비서류

-사실상 남침, 북침 논쟁은 사학계에서 종결

-조선일보 1994. 7. 23. 러시아 비밀문서 공개

6.25 전쟁의 불편한 진실

강철환

-만약 남한이 북침을 계획하고 먼저 선제공격했다면 어떻게 서울을 3일만에 점령다하고 한 달만에 부산까지 밀렸겠는가? 라며 6.25 다시 남한의 전쟁 준비는 고사하고 무방비상태였다고 말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일격에 남한을 공격한 것은 북한이며, 6.25전쟁은 김일성이 결정하고 저지른 침략전쟁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세뇌교육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집요하고 지독하게 이뤄진다.

거짓말도 백 번이나 하면 믿는다. 는 히틀러의 선전상과 벨스의 논리가 북한에서 적용되고 있다.

-6.25전쟁은 북한의 주적인 미국과 남조선을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그 증오심이 김씨왕조를 지탱시켜주는 명분이 됐기 때문이다.

대다수 북한 인민이 김씨왕조에 대해 진절머리를 내면서도 선뜻 대한민국으로 올 수 없는 것은 6.25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의 가해자를 남한으로 보기 때문이다.

1. 남북한 군사력 비교

| 구분 | 한국군 | 북한군 | 비고 |
|------|------------------------------|--|------|
| 병력 | 103,827 명 | 201,050명 | 1:2 |
| 전차 | 0 대 | 242 대 | |
| 야포 | 91 문 | 728 문 | 1:8 |
| 항공기 | 22 대 | 211 대 | 1:10 |
| 훈련 | 대대급 훈련 완료 : 16개 대대 | 사단기동훈련/보전포 협동훈련 완성 | |
| 전투경험 | 비정규전 : 공비토벌, 28선 분쟁 | -한인계 중공군 (28,000명) 5,6,12사/ 1,4사에 각 1개 연대 한인계 소련군 (5,000명) | |
| | 소수의 일본군 출신 지휘관 : 소부대 전투지휘 경험 | 다수의 팔로군 출신 지휘관 : 대부대 전투지휘 경험 | |

-전차, 전추기 한 대도 없는 한국군이 전차 242대, 전투기 211대, 자주포 176문을 보유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가?

3. 전쟁직전 한국군의 상태

-사단장등 중요 직위자 교체(6.10)

-연대급 부대 교체(6.13~20)

-공용화기 30%입고 정비, 노후 차량 대부분 입고

-1/3 병력 출타(장기간 비상으로 인한 경계태세 해제 후 휴가, 외출, 외박)

-육군회관 건립 기념파티 (6.24일 밤, 군 수뇌부/미 군사고문단 참석)

4. 공격당일 피. 아 상황

북한의 주장(조국해방전사 1권): 6.25 08:30. 평양방송

-6월 25일 이른 새벽 남한 군대가 38선 전역에 걸쳐 북한지역에 불의의 무력침공을 해왔다. 이 적들은 해주, 금천, 철원 및 기타지역으로 1~2km까지 쳐들어 왔다. 우리 공화국 경비대는 적을 좌절시켰다. 그리고 김일성 동지께서는 공화국 경비대와 인민군대에게 적의 침공을 저지시키고 즉시 반격으로 넘어갈 것을 명령하였다. 반격으로 넘어간 공화국 인민군대와 경비대는 6월 25일 현재 38선 이남지역으로 5~10km까지 전진하였다.

가. 국군이 먼저 공격하여 1~2km 쳐들어왔는데, 몇시간만에 반격하는 것을 불가능

-38경비여단 2~3개 중대가 한국군 1개 사단 공격을 막을 수 있나?

-기습당한 부대가 곧바로 한국군 1개 사단 공격을 막을 수 있나?

-북한의 주장대로 기습당해 1~2km 철수했다면

→일단은 큰 피해와 혼란을 당했을 것이고(당시 작전궁장 증언, 38선 이북 5km 평온)

→인민군부대 재정비하여 전투태세 갖추는 데 수십시간 이상 소요

나. 6월 25일 새벽, 아군공격을 받고, 반격에 나선 인민군이 어떻게 25일 04:30(정동진 400명), 06:00~07:00(임원진 600명)에 상륙할 수 있는가?

-속초에서 승선했다해도 정동진까지 최소 5시간 이상 소요(거리 70km, 시속 15km)

→아군이 공격하기 전인 6월 24일 오후에는 승선을 했다는 계산이 나옴

-766유격대 위치: 함북 회령(1949. 4월, 제 3군관학교에 설치)

→회령에 있는 부대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올 수 있는가?

북한이 사전 치밀한 공격계획에 의거 준비했다는 증거이다.

→사전 치밀한 공격계획: 549육전대 원산→양양(6.23) 766육전대: 회령→양양(6.23)

5. 1단계 작전 종료 후 북한군 2군단의 문책 인사(공격 부진 이유)

-2군단장 김광협 소장 → 군단 참모장.

2, 7사단장 → 대좌로 강등/ 보직 해임

-당시 2단장은 춘천 직 전장, 7사단은 자온리까지 진출, 남한에서 북침했다면 오히려 훈장을 주어야 할 판.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을 북한 주민 대부분은 남한이 먼저 공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

6.25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의 가해자를 남한과 미군으로 세뇌 교유, 남한과 미군을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 증오심이 김씨 왕조를 지탱케 하고 있다.

남침증거

-북한의 전투명령 제1호 (1950. 6. 22, 14:00)

-김일성과 스탈린의 대화록 (소련공산당 국제국 작성 한국전쟁 문서)

-후르시쵸프의 6.25 회고록

-북한군 수뇌부 증언

내가 남침 선제타격계획 작성 (전 인민군 작전국장 유성철)

북침주장은 거짓, 날조다 (전 인민군 부총참모장 이상조)

-1950. 6. 24. UN 옵저버 조사보고

한국군은 집결 미발견, 장비 부족으로 공격불가 상태

북한국은 민간인 소개 및 38선 남쪽 진지 장악

-친북, 좌파의 북침설 및 남침 유도설은 선전선동에 불과

북한 경찰명령 1호

-공격 개시 전까지 관측하고, 야간경찰을 실시하라

-한국군의 방어진지 편성과 주저항선, 공격개시와 동시에 수행할 임무 하달(1950. 6. 22. 14:00)

2사단 경찰명령 1호

-본 문서의 원본은 러시아어 필사체로 작성되었으며 전쟁 중인 1950년 10월 4일에 서울에서 노획되었다.

출처: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上 1995년 p87

수신 : 제 2사단 참모장

1. 적 제6사단 제7연대가 590~621고지를 방어하고 있다.

그 동쪽으로는 전 제19연대가 병행하여 방어하고 있다.

전의 경계진지는 38도선 근처의 고지에 연하여 있고, 주저항선 전단은이로부터 1~1.5km 후방 590고지 ~ 313고지.... 가 지리선에 연해 있다

2. 사단이 공격대기진지를 점령하면 관측과 경찰을 통하여 공격개시 전날말까지 적 주저항선, 지뢰와 장애물 지대 및 통로....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

공격이 개시되면 적 예비대의 투입을 관찰하고, 부대의 철수 개시와 상황을 파악한다.

김일성과 스탈린의 대화록

김일성: 모택동 동지는 항상 조선 전체를 해방하는 우리의 희망을 지지하였습니다.

모택동 동지는 중국 혁명만 완성되면 우리를 돕고, 필요할 경우 병력도 지원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조선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스탈린: 완벽한 전쟁 준비가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군사력의 준비 태세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엘리트 공격 사단을 작성하고 추가 부대 창설을 서두르시오. 사단의 무기 보유를 늘리고 이동 전투 수단을 기계화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귀하의 요청을 모두 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연 후에 상세한 공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격은 3단계로 작성하시오.

1. 38도선 가까이 특정 지역으로 병력 집결
2. 북조선 당국이 평화 통일에 관해 계속 새로운 제의를 내놓을 것
3. 상대가 평화 제의를 거부한 뒤 기습 공격을 가할 것

동진반도를 점령하겠사든 귀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공격을 계시한 측의 의도를 위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측의 전세 공격과 남측의 대응 공격이 있은 뒤 전선을 확대 할 기회가 생길 것이오. 전쟁은 기습적이고 신속해야 합니다. 남조선과 미국이 정신을 차릴 틈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강력한 저항과 국제적인 지원이 동원할 시간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후르시쵸프의 '6.25 회고록'

“우리는 조선 전쟁을 시작한 것은 ‘남조선’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나는 지금 역사를 위해 진실을 말하고 있다”

“전쟁의 시작은 김일성 종지가 발의, 스탈린이 승인하였으며, 그는 공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

북한군 수뇌부 증언

“남침준비를 군사훈련으로 위장하는 계획 등으로 짜여져 있었다.”

“1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작전계획을 수립했고 내가 이를 최종 종합했다.”

6.25전쟁은 북한의 명백한 기습 남침이였다.

6.25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왜 서로 적이 되어 싸워야 하는거니?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전쟁’

*‘북한 공사집단의 이중성·양면성 실증’
*‘유비무환의 중요성 인식’
→안보는 스스로 지키지 않는 한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6.25전쟁 교훈

- 국력신장(현대전은 총력전)
- 입체적 조기경보체제 확립
- 전투수행방법 및 전투기량 연마
- 전력의 균형발전으로 국방태세 완비
- 전·후방 동시전투 체제 확립
- 연합 및 합동작전 훈련 요구
- 병참선 확보가 전쟁의 승패와 직결
- 투철한 정신전력 및 국민화합이 안보의 원동력

6.25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자주국방의 필요성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인 침략을 받음
무력도발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만 함
전·후방 동시전투 체제의 확립, 전투수행능력, 전투기량 등을 연마해 안벽한 자주국방태세를 확립

*입체적인 조기 경보 체제 확립
적의 기도를 사전에 탐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
연합 및 민·관·군 모두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조기경과가 가능토록 체제를 확립해야 함

*연합 및 합동작전 능력의 요구
현대전에서는 연합 및 합동작전이 필수불가결한 요소
평소부터 꾸준한 훈련을 통한 작전능력을 구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해·공군 전력의 균형된 발전으로 국방태세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
북한이 해·공군의 증강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완벽한 국방태세 요구

*투철한 정신전력 및 국민화합은 총력안보의 원동력
북한의 불법남침을 격퇴할 수 있었던 것은 온 국민이 강한 애국심과 반공사상을 무장하여 대항했기 때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 억제’를 위하여 국력신장 하는 것!

우리의 자세

※6.25전쟁 이후에도 계속된 북한의 도발사례

1966년5월17일-경남진주 덕의마을 무장공비 침투사건
1967년1월19일-해군당포함(56함)초계함 북한 해안포에 격침당함
1967년5월21일-강릉고단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1968년1월21일-1.21사태. 김신조를 포함한 북측의 무장공비가 청와대 기습을 시도
1968년11월2일-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북한124군부대)전원사살
1974년5월20일-추자도 무장공비 침투사건
1976년8월18일-관문점 도끼 사건 발생, 북한군 미군장교 사살
1983년10월9일-비마(미안마)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부총리 외무장관 등 수행원17명 사망
1987년11월29일-인도양 상공에서 대한항공858편 테러사건
1996년9월18일-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북한 특수부대 전원사살 소탕)
1998년6월22일-속초 앞바다 무장공비 침투사건
1999년6월15일-제1차 연평해전 발생
2002년6월29일-제2차 연평해전 발생
2006년7월5일-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
2006년10월9일--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함
2008년7월11일-금강산 관광 중 박왕자 씨 피격 사망사건
2009년5월-미사일 발사 실험 남한에 도발 엄포
2009년11월10일-서해교전(대청해전)서해북방한계선에서 남북해군 교전
2010년3월26일-백령도 해상에서 천안함 피격침몰사건 발생
2010년11월23일-북한 연평도에 포격, 해병대원전사 2명, 부상16명 주민가옥20여채 전소

우리의 현실은

- 시퍼렇게 눈을 뜬 전쟁경험자도 많은데 “6.25가 통일전쟁, 부침이라니...”
- “한국전쟁은 내전이다!”/그러면 참전한 UN군은 남의 집안싸움에 뛰어든 무법자들인가?
- “부간의 핵무기는 한국 위협용이 아니다!”/ 조폭이 앞집에서 수류탄으로 수시 장난치는데 전혀 불안하지 않는가?

서울서 6.25전사자 유해 첫 발굴 작업

전쟁이 발발할 경우 예상 피해

- 일주일 이내 240만명의 인명피해, 주요시설 60%파괴
- 1개월 이내 남한 인구의1/10사상
- 시설·물자 대부분 파괴, 손상
- *남북한 같이 멸망!

자주국방만이 살 길이다.

1. 국제적 지원은 ‘지원’일 뿐

- 당시 사례 : 남북 당사자는 악착같이 싸우려 했으나, 미중은 명분 우선
- 중공: 초기 승리 후 5~7일 후 퇴각/ 공격중지 반복(김일성과 갈등)
- 미국 : 당시 전세에 따라 전쟁목표 수시변경(통일→휴전)
- 북한 : 남진 각 작전한계도달했으나 독전대까지 동원→독전 강요

-남한: 38선에서 정치명령에도 돌파, 휴전반대, 반공포로 석방

※북진간 한국군 1일 25-30km전진, 미 1기병사단 행군 능가(차량화, 1일18km)

→1. 군화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대부분 형검 훈련화 착용

2. 후송기는 전우의 훈련화를 바꿔 신을 정도의 보급상태

2. 국제관계는 국가이익 우선,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국가간의 냉혹한 이해관계 발생

우리의 자세

■이스라엘 국민은 '마사다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매년 장교임관시 '마사다 로 오드파암'(마사나의 비극을 잊지 말자) 맹세

■우리는 '6.25전쟁'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계가 기억하는 가장 '비참한전쟁',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동족상진'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 북한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북한의 계속적인 위협을 국민적인 종화 단결로 극복하여 평화통일 성취

■'천하수안, 망전필위'를 명심하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 합시다!

Never, Never, Never "Don't forget 6.25"

천하수하 만경심필

천하가 비록 태평하다 하여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에 처하게 된다 - '을곡 이이'

당신은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머슴입니까? -도산 안창호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베제티우스

평화! 지킬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

결의

1. 북한과의 경쟁은 불가피하나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함.

■모든 면에서 압도적우위에 있어야 개방유도, 군축, 적화야욕 포기 등 가능

■지금 전쟁이 또 일어난다면, 6.25피해의 17배 희생 각오

2. 안보의식이 무너지면, 국력약화→수난의 역사 반복

※안보의식이 투철해야 사회발전, 가정행복 보장→국력강화

3. 스스로 지킬 힘이 있을 때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것

*현재의 평화는 불완전한 평화(휴전, 적대적인 적과 대치)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미국의 전쟁목적 변호과정

6.25전쟁의 피해

6.25전쟁의 진실

교훈과 우리의 자세